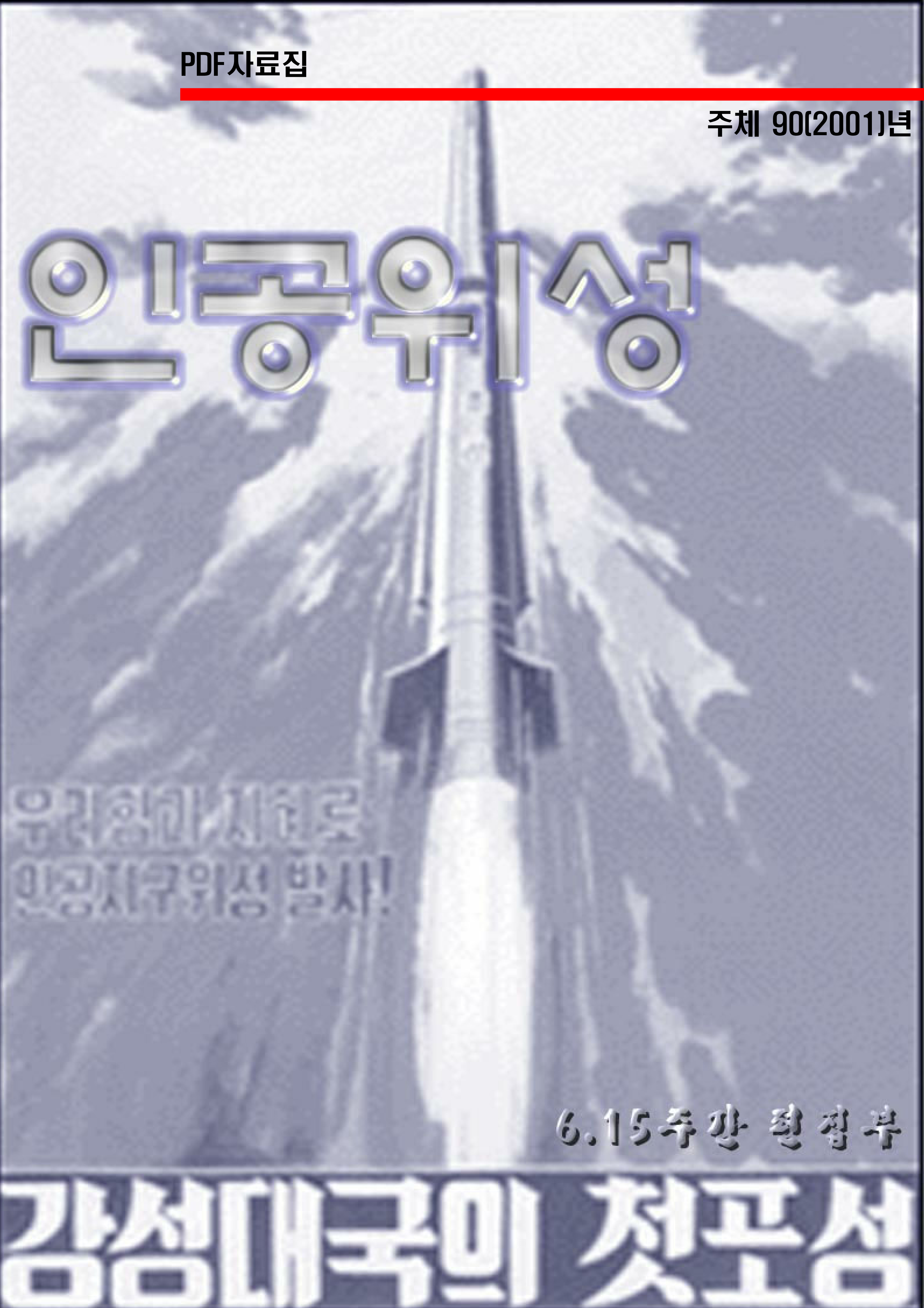
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인공위성



6.15주간 편집부

강성대국의 첫포성

인공위성

6.15주간 편집부

공화국에서 첫 인공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운반 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운반로케트는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되여 4분 53초만인 12시 11분 53초에 위성을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운반로케트는 3계단으로 되여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키로메터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9도 40분의 조선동해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 646키로메터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위성은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 82키로메터, 제일 먼거리 6, 978. 2키로메터의 타원궤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주기는 165분 6초이다.

위성에는 필요한 탐측기재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계산토대를 확정하는데도 의의가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되고있다.

이번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단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100프로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김정일총비서 인공지구위성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문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사문에서 최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지구위성을 단 한발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를 키우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감사문에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개발제작하여 쏴올림으로써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모든것을 다 바쳐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증시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 이룩된것으로하여 우리 인민에게 더없는 긍지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감사문에는 지적되여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개발하여 발사한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과학기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활동은 진보적인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있다고 지적되여있다.

감사문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조선의 과학기술일군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존엄을 깊이 간직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감사문에는 지적되여있다.



인공위성발사관계자들을 위한 연회

당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평양 9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26일 저녁 목란관에서 차렸다.

연회에는 조명록동지, 김영춘동지, 김일철동지, 전병호동지, 김철만동지와 과학연구부문 책임일군들, 인공지구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불타는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킨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최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지구위성을 100프로 우리의 지혜와 기술, 우리의 노력과 자재로 개발하여 단번에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은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시위하고 강성대국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사에 특기할 이 력사적사변은 만난을 이겨내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백배, 천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무서운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우주정복분야에서 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강국으로서의 그 위용을 자랑높이 떨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동지들에게 돌리시여 주실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연설자는 나라와 인민앞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금방석우에 올려놓고 자랑해야 한다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충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연회에서는 주규창, 권동화, 조권모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성과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전적으로 돌려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신임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연회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담화

(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은 최근 우리 나라 해당부문에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진행한것과 관련하여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이것은 100%. 1000% 우리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자립적민족경제의 또하나의 결실로서 우리 민족과 벗들에게 있어서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경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일부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도 놀라는격으로 인류공동의 재보에 기여하게 될 이 귀중한 과학기술성과도 못알아보고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라고 떠들면서 그 무슨 ≪우려≫를 느낀다느니, ≪심각한 사태발전≫이라느니 하며 헤덤비는 심한 경거망동들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마치 우리가 탄도미싸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저들의 의무를 리행하기 힘들게 된것처럼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려 하고있으며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라고 제입으로 떠들던 식량지원문제까지 여기에 련관시키려 하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의 태도이다.

일본당국자들은 내막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했다는 남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끌고간다느니, 그 무슨 ≪대응조치≫를 취한다느니 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국교정상화교섭의 ≪보류≫를 운운하기전에 먼저 일본은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것은 그 어떤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막을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며 그에 부합되게 인공지구위성을 개발, 발사, 리용하는것은 현대과학기술이 지향하고있는 하나의 강력한 추세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때 가타부타 한적이 없으며 그 위성들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정탐행위에 리용되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성보유국으로 되는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선제타격을 심사숙고해야 하며 일본은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참전하려는 법제정놀음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위성발사에는 오늘의 난관속에서도 래일의 강성대국을 다져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철의 의지와 불변의 기상이 어려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특히 적대세력들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유도해보려다가는 불이나 맞을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대일 3대응조치를 선언

인공위성발사문제로 외무성대변인 성명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일본의 무분별한 경거망동으로 하여 오늘 동북아세아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일본의 무분별한 경거망동으로 하여 오늘 동북아세아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일본당국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유독 혼자서 아직까지 탄도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조일국교정상화교섭과 우리 나라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며 고려항공기의 일본운행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터무니없게도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까지 끌고가 우리에게 그 무슨 ≪국제적압력≫을 조성해보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일본당국이 국교정상화회담을 마치 재개하기나 하려했던듯이 묘사하는것부터가 가소롭기 그지없는 불순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당국의 반공화국깜빠니야의 산물로 재일조선인들과 우리 인민의 벗들에 대한 각종 협박과 침해행위를 비롯한 테로광풍이 몰아쳐 그들의 생명재산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으며 당국자들은 설사 이번 발사가 위성발사라고 해도 우리에게 취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망언들을 련발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의 군부와 정부당국자들속에서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타격≫까지 운운하는 폭언들이 로골적으로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위성발사는 전적으로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우리의 ≪광명성1호≫발사는 철두철미 평화적인 과학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공화국정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빛나게 관철한 결과 앞으로 상업적인 위성발사와 같은 국제적인 첨단기술시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식량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더 빨리 더 많이 획득할수 있는 토대도 확고히 마련되였다.

우리의 이번 위성발사에는 이웃나라들과 국제항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도 충분히 강구되였으며 그 결과는 발사후의 현실이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제힘으로 확인할 재간이 없는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있지만 일본의 ≪미싸일공포증≫을 오히려 필요로 하고있는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것을 인차 확인해줄리는 만무하다.

우리의 위성발사에 뒤이어 조미회담이 타결된 의미심장한 사태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자기 동료들까지 난처하게 만들면서 이처럼 홀로 광증을 부리는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유독 일본만이 그토록 ≪우려≫를 느낀다고 하는것은 도적이 제발 저리다는 격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지은죄가 있기때문이며 저들의 군국화야망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세기가 넘어가는 오늘까지도 회피하고있는 일본으로서는 하루도 발편잠을 잘날이 없게 되여있다.

또한 일본당국은 내외에 우리가 미싸일을 발사했다고 주입시켜야 새로 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위한 국내법을 조작해내는데도 유리하고 ≪전역미싸일방위체계≫도입을 위한 여론도 조성할수 있으며 군사대국화에 필요한 독자적인 군사위성의 보유도 성사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무모한 광증으로 하여 지금 조일관계는 단순한 랭각이나 악화의 도수를 넘어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 이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동북아세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일본이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매여달리는 한 일본과는 절대로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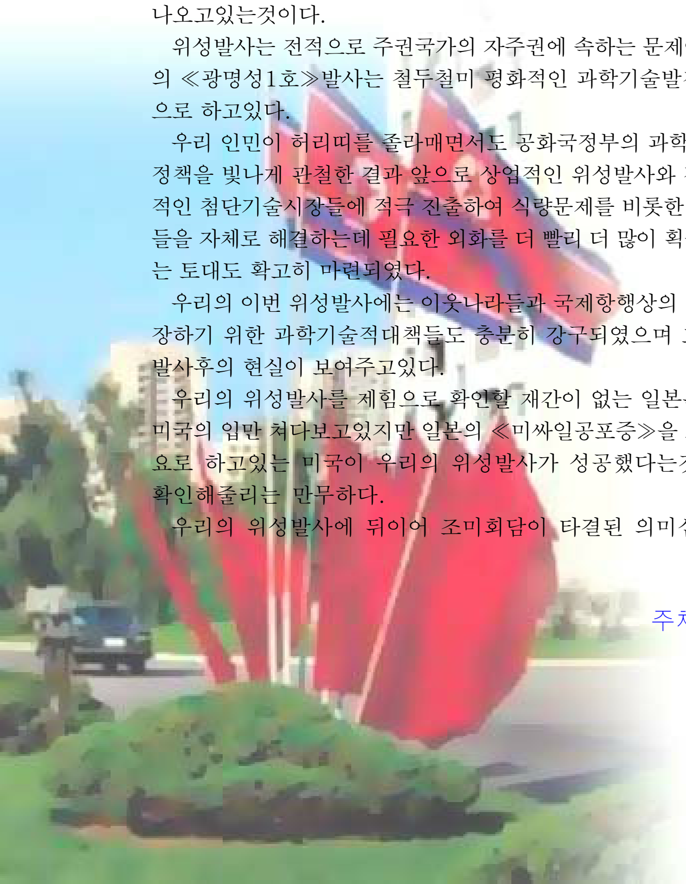
둘째,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더이상 회피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측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셋째, 일본의 반공화국행위에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것이다.

일본에 있는 조선민족성원들에 대한 그 어떤 적대행위도 일본당국의 반공화국행위로 간주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공화국도발소동에서 찾으려 하고 우리의 위성발사를 군국주의 부활의 기회로 삼아 재침의 창끝을 우리에게로 돌리려 하는 저들의 책동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주체87(1998)년 9월 15일
평양



일본의 군사위성도입에 자위적조치

조선외무성대변인 성명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지난 6일의 각료회의라는데서 군사위성도입을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1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재침야망과 군사대국화기도가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지난 6일에 있은 각료회의라는데서 ≪안전보장과 관련한 외교 및 방위 분야의 정보, 대규모재해 등의 위기관리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2002년까지 정보수집위성 4개를 배비하기로 최종확정하고 이를 위해 내각관방에 관계 성, 청으로 구성된 ≪정보수집위성추진위원회≫라는것을 설치하기로 공식결정하였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성≫이라는 명목으로 끝끝내 군사위성도입을 결정한것은 지금까지 주변의 눈치를 봐가며 추진시켜오던 군사대국화정책과 해외침략준비를 합법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또하나의 위험천만한 군사적행동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이번 군사위성도입결정을 통하여 일본이 지금껏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왜 그토록 ≪미싸일발사≫라고 한사코 우겨대면서 전례없는 반공화국소동과 그 무슨 ≪안보≫와 ≪위기관리대처≫를 떠들며 분주탕을 피웠는지 그 진의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사실상 일본은 패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우리 공화국을 첫째가는 표적으로 삼고 재침준비를 다그쳐왔다.

이러한 일본이 이번에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걸어 군사위성도입을 결정한것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극단적인 산물로서 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위협공갈이며 대조선재침야망을 본격적인 실천단계에로 전환시킨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로 된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침략정책을 공공연히 실천에 옮기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하에서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도전에 대하여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대응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는 무모한 행동이 빚어내게 될 예측할수 없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것이다.

전패국인 일본이 오늘에 와서 군사위성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현에로 나아가는데는 비단 조선에 대한 재침만이 아니라 지난 침략전쟁에서 못다이룬 ≪대동아공영권≫의 허황한 망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복수적인 야망도 깔려있다.

일본의 군사위성도입결정에 대하여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아세아나라들이 ≪정보위성≫이라기보다 ≪간첩위성≫이라고 일치하게 평하면서 그에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위성도입시도가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지역나라들사이에 불신과 대립, 긴장상태만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할것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군사적팽창기도가 더욱 더 로골화되고있는 지금의 정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일본의 군국주의적재침야망과 군사대국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은 어제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던 그때의 그 인민들이 아니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무모한 대조선재침기도와 군사대국화책동이 일본의 전도와 운명에 가져다줄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일본은 사태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장거리미싸일발사시험소동과 관련하여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일본이 우리가 장거리미싸일발사시험을 하였다고 소란스럽게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최근 며칠째 일본에서는 우리가 장거리미싸일발사시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제 집 기둥이라도 무너져나간것처럼 소란스럽게 떠들고있다.

고위당국자들을 포함한 정계 인물들은 우리가 미싸일발사시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극히 ≪유감≫이라느니, ≪위험한 행위≫라느니, 우리와의 관계개선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걸고드는 자극적인 발언들을 망탕 쾌치고있다.

일본은 우리가 미싸일시험을 하건 무엇을 하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소리나 망탕 하는것은 경망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다.

여기에 일본이 중뿔나게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에 간참해나설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장거리운반수단을 포함하여 현대적무기들을 적극 개발하고있고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고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있는 일본의 처지를 놓고보면 참으로 가소로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주변에는 미싸일을 가지고있거나 배비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일본의 정객들이 유독 우리에 대해서만 ≪위험≫이다 뭐다 하면서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고 입빠르게 우리를 걸고들며 떠들어대는것은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시정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들이 대량살륙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면서 우리에 대한 침략책동을 날로 강화하고있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미싸일이나 우리에 대한 외부의 침략위협에 대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만 분별없는 소동을 벌리는것은 그들이 지난날의 시대착오적인 적대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어 일본당국자들은 미싸일발사시험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쾌치고있다.

저들이 먼저 막뒤에서 관계개선문제를 제기해놓고 그것이 어렵게 되였다 뭐다 하는것은 그들의 량면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것으로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아량있는 태도에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대답하면서 찬물을 끼얹어왔다.

일본은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닥치는대로 우리 인민을 학살략탈한데 대하여 응당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복잡소동을 벌리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일본이 사태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며 우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경고한다.

조선신보 98/09/04



위성인지 탄도미싸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주제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계기로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 일본반동들과 함께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 심술궂은 입방아질로 갖은 추태를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는 지금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구위성의 이 성공적발사는 주체적인 우리의 과학기술과 자립적민족경제의 또하나의 빛나는 결실로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성공탑으로 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 일본반동들과 함께 우리의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 심술궂은 입방아질을 하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안전보장회의≫를 벌려놓고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그 무슨 ≪위협≫으로 된다느니 하는 따위의 험담으로 저들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들이 무어라고 하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성은 지금도 자기 궤도를 돌고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놓고 구태여 불안해할것도 없고 시샘할것도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에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범에게 놀란 황서방이 잠결에도 범이야 한다는 격으로 그 무슨 ≪탄도미싸일발사≫니, ≪엄중한 도발≫이니 하고 갖은 비렬한 추태를 다 부렸다.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은 감히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타격태세강화≫니, ≪한미련합대응태세확립≫이니 하고 떠들어대였으며 일본을 행각중이던 국방부장관은 체류일정마저 전면취소하고 서울로 황급히 돌아오는 소동까지 일으켰다.

심지어 그들은 미국에 대고 ≪대북압력을 행사해줄것을 요청≫하는 꼬락서니까지 보여주었다

동족의 성과를 같이 기뻐하며 자랑으로 여길 대신 미국에게 동족에 대한 그 어떤 압력을 구걸해나서는 남조선통치배들의 행위야말로 온 민족의 저주를 받을 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이 개탄스러운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는것을 내외에 공식보도함으로써 서뿌르게 ≪탄도미싸일발사≫를 떠들어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은 사실상 개코망신을 하고 닭쫓던 개신세로 되였다.

위성인지 탄도미싸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주제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있는편이 낫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보여준 이번의 추태는 자주성이 없이 남의 입놀림을 따라외우며 외세에 추종하는자들이 당한 응당한 망신이며 수치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의 망동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오직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의 경거망동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제 정신을 못가지고 사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정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위력한가 하는것을 늦게라도 깨닫는것이 좋을것이다.

자주만이 민족의 살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와 보조를 같이할 용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뒤따라올 용기라도 가져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상전의 말보다 동족의 말이 약으로 될것이다.

조선신보 98/09/11



일본정객인공위성관련언행은 국제법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

조선민주법률가협회

(평양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최근 일본정객들이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것을 놓고 국제법과 관례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언행을 마구 해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가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경탄과 축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입삐뚤어진 소리만 계속 나오고있다.

일본의 정객들은 사태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입빠르게 허튼 소리를 마구 줴치다가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한 우리의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인공위성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미싸일≫이라고 우겨대는가 하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의 성공이 명백해지자 이번에는 미싸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군사적위험성을 내포하고있기때문에 ≪용납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국제관례나 상식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걸고드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계속 하고있다.

인공위성이나 미싸일발사는 특정한 나라의 전매특허품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인공위성을 쏴올리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공인되여있으며 사전통고없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관례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적 및 경제적 잠재력만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인공위성을 발사할수 있다는것이 국제적상식으로 되여있다.

세계에 큰 나라,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있을수 있으나 우주공간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인공위성발사를 특정된 나라만이 할수 있다는 법은 없다.

일본의 정객들이 이러한 국제적상식도 모르고 우리를 계속 걸고든다면 그것은 자체무지를 폭로하는 행위로밖에 달리 볼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는것을 보도한 이후에도 갸미싸일갸이라고 계속 우겨대는것을 보면 국제적 관례나 상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일본의 정객들이 추구하는 정치적목적이 있기때문이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인공위성개발에 착수하여 197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올해 9월 7일에도 오존층조사를 명분으로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여기에다 일본령토와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들이 수두룩 쌓여있다.

그런데 일본정객들의 말을 빈다면 저들이 소유한 미싸일이나 인공위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들은 위험성이 없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인공위성만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기때문에 용납할수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오늘의 국제질서하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강도적궤변에 불과하다.

일본의 정객들이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군국화를 다그치는 저들의 소행부터 먼저 반성하고 우리에 대해 입빠른소리를 하면서 걸고든데 대하여 응당 사죄해야 옳을것이다.

그런데 내막도 모르고 허튼소리를 망탕 줴치다가 이제는 우리의 인공위성발사성과를 부인하려 드는가 하면 ≪위험성≫에 대하여서까지 떠들어대고있다.

일본은 조선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죄악의 력사에 대하여 아직 똑똑히 사죄도 안하고 응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여 일본은 유엔헌장에서 ≪적국≫의 오명을 아직 벗지못하고있다.

일본이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자기 처지에도 맞지 않게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공동체로부터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일본정객들이 국제법과 관례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언행을 마구 해대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규탄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공동체에 제소하는바이다.

일본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반공화국소동을 중지하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성명

(평양 9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일본당국자들이 그 무슨 ≪군사적위협≫론을 제창하면서 공화국을 모독하는 망발과 추태를 계속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얼마전에 우리가 100프로 자체의 지혜와 기술로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우주궤도에 쏴올린것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당국자들만이 ≪평화옹호자≫로 둔갑하여 남의 성과를 시비하는데 계속 몰두하고있다.

아무런 주대도 없이 남의 장단에 춤추던 일본당국자들과 정객들은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는것이 확인된 오늘에 와서도 그 무슨 ≪군사적위협≫론을 제창하면서 우리를 모독하는 망발과 추태를 계속 부리고있다.

이것은 일본자체의 무식을 폭로하는것이며 그 목적은 다른데 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평화적목적에 리용되는 인공지구위성발사도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의 론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먼저 일본에 대하여 할말이 많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우주공간을 군사적무대로 만들어온 일본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돌이켜 보는것이 필요하다.

1954년 맥아더사령부의 승인밑에 시작된 일본의 우주개발계획은 ≪우주개발사업단≫, ≪우주과학연구소≫, ≪항공기술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2백여개의 회사들이 망라되여 추진되여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1975년 9월에 첫 위성을 발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산화≫를 제창하면서 위성과 그 운반수단들을 자체로 생산,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2월 4일에는 대형로케트를 발사하는가 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2월과 7월에 련속 발사하였다.

일본은 최근에 발사한것까지 포함하여 68번째 위성을 발사하였다.

일본당국자들과 정객들에게 묻노니 일본이 지난 시기 이렇게 위성과 로케트를 발사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통고한적이 있는가.

일본은 남의 나라의 추동을 받으면서 제멋대로 위성을 발사할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도적론리가 어디에서 출발한것인가.

최근 일본자체에서 군사일면에 치우치고있는 우주개발의 비효률성에 대해 떠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일본이 우주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특히 일본이 대량살륙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을 현대화하는 한편 일미방위협력의 그늘밑에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려는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것은 사실상 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일본의 정객들이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저들의 군국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벌리는 책동이라는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것이 명백해지자 일본국내에서까지도 일본≪정부≫의 반공화국소동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시키고 군비확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책동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본당국자들은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보다도 지난시기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여 세계인민들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일본의 우주개발과 군사대국화 책동에 더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반공화국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만일 일본이 진정으로 동북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군국화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반인륜적인 죄악의 력사에 대하여서부터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할것이다.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면 이런것을 제소해야 할것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일본의 정객들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규탄하면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의 교활한 군사대국화 책동에 응당한 경계심을 가질것을 호소한다.



일본의 반공화국책동규탄

인공위성발사문제로 조선반핵평화위성명

(평양 9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지금 일본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전면에 내걸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6일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일본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가 군사적목적을 추구하는 탄도미싸일발사라는 억지주장을 하는가하면 그를 전면에 내걸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려는 심상치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일본 정부와 군부의 고위당국자들속에서는 ≪자위대≫가 군사적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정찰위성을 자체로 쏴올려 보유해야 한다느니, 시간과 돈이 들어도 전역미싸일방위를 포함한 미국의 탄도미싸일방위계획에 참가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이러한 주장들을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래년도예산에 포함시키려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외부의 리해를 구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인공위성발사가 진행된후 살 때나 만났다는듯이 로골화되는 일본의 이러한 군비확장책동은 동아세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사촉하고 촉발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전패국으로서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일본이 군사비를체계적으로 늘이면서 현대적인 군사장비와 기술을 계속 끌어들이고 개발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본에서 복수주의와 군국주의망령이 되살아나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후 수억엔단위에서 맴돌던 일본의 군사비는 1970년대에 1조엔을 돌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조 9, 500억엔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은 ≪아왁스기≫(조기경계관제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최근에는 항공모함으로도 리용할수 있는 초대형함선까지 만들어 ≪자위대≫가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은 인공위성개발의 미명하에 탄도미싸일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70년대에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이래 오늘까지 수십개의 위성을 련속 쏴올린 일본은 올해 7월 4일에도 ≪화성탐측위성발사≫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의 로케트가운데서 가장 큰 4단계 고체연료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발사를 통하여 일본의 대륙간탄도미싸일기술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에로가는 길에서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제조에 리용할수 있는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평화유지활동≫의 미명하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데 이어 ≪자위대≫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인 ≪림팩≫을 비롯한 해외군사연습들에까지 참가시키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곧 해외팽창과 침략으로 이어진다는것은 일본의 근대력사가 확증한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쳐나가면서도리여 평화적인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탄도미싸일발사≫요, 군사적목적의 추구요 하고 떠들어대는 파렴치한 광대극을 벌리고있다.

일본이 저들의 인공위성발사는 평화적인것이고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는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해마다 천문학적수자로 늘어나는 저들의 군사비확대와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군사대국화책동에 대한 국내외의 불만과 우려를 가라앉히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보다 합법적으로, 로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랭전의 산물인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수정보충하여 우리를반대하는 적대적인 군사행동에 합법적으로 가담할수 있는 법률적기초까지 이미 마련한 일본은 정찰위성과 전역미싸일방위체계도입 등 보다 로골화되는 저들의 군사대국화정책이 초래하게 될 지역의 군비경쟁의 책임을 다름아닌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이러한 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군사대국화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의 평화적인 과학기술활동에 터무니없는 모자를 씌우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책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롱이며 그 수법의 저렬성은 낵낵이 드러나 저주와 조소의대상으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는 동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자가 누구이며 군비경쟁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살하고 군비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고있는 일본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시대는 일본이 일본도를 휘두르며 아세아나라들을 군화로 짓밟던때가 아니다.

일본당국자들은 팽창열에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자기가 누구를 대상하고있는가를 랭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본이 과대망상증과 해외팽창광증에 들떠 계속 군사대국화책동에 매달린다면 50여년전의 참패에 비할바없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은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중지하라

조선민주녀성동맹성명



방화사건이 일어난 총련 지바현본부회관(지바조선회관)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이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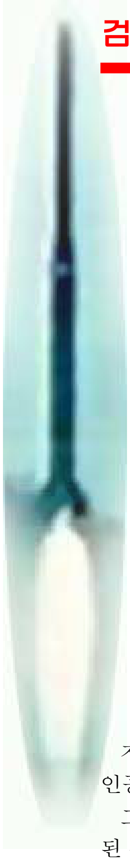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침해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전체 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일본반동들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은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큰 죄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당국이 지난날 일제가 근 20만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킨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데 대해 아직도 명백한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은채 깡패들을 동원하여 백주에 조선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어놓는것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있으니 우리 조선녀성들이 어찌 이를용납할수 있겠는가.

일본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큰 죄에 대하여 명백히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녀성단체들이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일본에서 벌어지는 ≪탄도미싸일발사설≫ 소동

지난 8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나라에서 처음되는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때부터 오늘까지사이에 공화국측에서는 일본매스콤에 소개 안된 위성발사에 관한 수많은 정보,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것은 위성발사에 직접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증언, 담화들이다.

아래에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미국, 남조선 등의 관련자료에 기초하여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조선에서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무수단리의 우주로케트기지

조선북부의 공업도시－김책시에서 동북동에 60키로메터쯤 떨어진곳에 위치하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는 조선동해와 면한 고요한 해안가이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무수단리는 우주로케트를 발사하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여기에는 발사대, 지령소, 관측소 등이 늘어서있다. 또한 평양시, 황해북도를 비롯한 몇군데에도 우주로케트의 관측소가 설치되였다.

미국은 이미 자기의 정찰위성에서 공화국의 우주로케트발사기지를 탐지하고있었다는것이 예측된다.

8월 31일 오후 12시 7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무수단리에서 발사되였다. 당초 발사시간은 관측에 유리한 저녁시간에 설정되여있었다. 그런데 발사당일날인 31일의 기상예보를 보면 낮시간에는 개이고 고공풍이 없지만 저녁녘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것이라는것이였다. 발사준비가 이미 빈틈없이 되여있었고 낮에 발사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성을 감시할수 있었기때문에 시간을 앞당겨 위성을 낮에 쏴올렸던것이다.

굉음을 울리며 날아오르는 로케트를 지켜보는 권동화박사, 한해철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발사성공을 확신하면서 크나큰 기쁨에 휩싸였다.

위성운반로케트는 최신식인 3계단식이며 제1계단과 제2계단은 액체연료발동기(다섯종류의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연료), 제3계단은 고체연료를 가진 구형발동기와 제어용 소형발동기(3기)를 싣고 있었다. 고성능의 액체로케트(액체연료와 산화제)는 우주로케트개발의 주류이다. 제1계단로케트에는 조종장치가, 제2계단로케트에는 가속기, 조종장치, 콤퓨터 등의 관성유도장치, 무선자폭장치가 설치되였다.

발사방향의 설정

일반적으로 우주로케트의 발사는 지구의 자전을 리용하여 동쪽을 향하여 정한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적도우의 지표면에서 시속 1670키로메터(초속 465메터)이다. 적도에서 진동으로 로케트를 쏘아올리면 발사가속도를 6%쯤 더 얻을수 있다. 때문에 로케트를 발사하는데서 가장 리상적인 지점은 적도의 바로우인것이다.

이번에 설정한 발사 방위와 방향은 과학기술적조건을 면밀이 분석한 토대우에서 국제법에 기초하여 주변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최대한 존중한 결과이다.

가장 리상적인 우주로케트의 발사방향각도는 방위 90도인 진동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령토상공을 경유하고 분리된 제2계단이 일본령해 가까운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보다 안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사방위를 86도로 수정하고 조선동해를 횡단하여 쯔가루해협의 상공을 넘어 태평양의 공해상을 날아가도록 하였다. 만일 로케트가 비행도중에 예정된 자리에서 탈선되는 경우에도 안전지대에로 유도하여 자체폭파할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여있었다.

1계단은 발사후 95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키로메터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2도 40분의 조선동해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 646키로메터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후 27초만에(발사 293초후, 12시 11분 53초) 제1우주속도(초속 7. 8키로메터)를 넘어 초속 8. 98키로메터의 속도로 위성본체를 자기 궤도에 진입시켰다.

우주로케트와 탄도미싸일의 궤도는 서로 차이난다. 우주로케트는 3계단발동기에 점화하는것과 동시에 지구겉면과 수평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궤도를 돈다. 그러나 탄도미싸일경우는 마지막구간에서 지구수평면에 대하여 40～45도의 자세로 대기권에 재돌입한다.

순회궤도를 돌다

현재 ≪광명성1호≫는 지구에서 근지점 218. 82키로메터, 원지점 6978. 2키로메터로 되는 타원형의 순회궤도로 지구를 돌고있다.

그 주기는 165분 6초, 하루에 지구를 약 8. 7바퀴 돈다. 9월 13일 오전 8시 24분부터 11시 17사이에 100바퀴째를 돌고 공화국의 상공 220키로지점을 통과하여 하와이북부, 칠레, 아르헨띠나, 나미비아, 앙골라, 꽁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중국의 상공을 지났다.

10월 5일경에 다시 공화국의 상공을 지날 때 만일 밤하늘이 개였다면 위성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다고 한다. (1바퀴째－8월 31일 오후 3시 1분 조선남해, 7바퀴째－오전 10시 8분 남조선, 15바퀴째 9월 2일 오전 10시 54분 조선중부, 23바퀴째－9월 3일 오전 11시 43분 조선북부의 상공을 각각 통과)

≪광명성1호≫는 음악선률과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를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하고있다. 또한 위성에서는 온도와 압력, 전원상태 등의 탐측자료가 보내오고있다. 9월 7일 야밤, 텔레비아사히는 평양에서 엿들은 음악과 모르스신호소리를 방송하였다. 위성은 실험용이므로 태양전지를 쓰지않고 바테리를 싣고있다. 음악과 전신부호는 발사후 9일간으로 끊어졌으며 위성본체의 수명은 약 2년이다.

공화국에서는 9월 4일에 처음으로 위성발사성공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위성발사의 성공여부와 제반 측정자료를 수집종합한 다음 심중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취하였기때문이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

일반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에는 10여년의 세월과 정식발사를 앞두고 30번쯤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기상관측과 위성통신을 목적으로 한 우주시스템공학의 연구와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벌려왔다. 94년에 열린 인공지구위성의 원격조종에 관한 국제심포쥼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우리 공화국도 참가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벌써 6년전에 ≪광명성1호≫본체와 운반로케트의 개발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90년대초에는 발사준비를 완료하고있었다. 그동안 국제정세의 격변과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대한 국상기간(3년간)을 고려하여 발사시기를 기다리고있었으나 국경절 50돐을 축하하여 드디여 발사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이번 발사목적은 ①인공위성의 정확한 궤도진입 ②다계단운반로케트의 구조공학적설계와 조종기술 완비 ③우주공간환경을 연구하고 우주공간환경속에서 전자장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가를 검증 ④운반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인류공동의 우주평화리용의 한몫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국산의 기상위성, 통신위성, 자원탐사위성을 쏴올린것과 그로 하여 농업발전, 석유개발, 정보통신의 새 가능성을 열어나가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련속되는 이상기후를 관측하는데서도 기다리고기다린 인공위성발사였다.

98년 1월현재 세계의 인공지구위성수(과학, 실용, 군사)는 4939개를 넘으며 주 3번의 속도로 이 지구상 어딘가의 발사장에서 발사되고있다.

세계에서 9번째가 되는 국산위성발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발사한 9번째의 나라이다. 지금까지 ①구쏘련(57년 10월 스프토니크1호), ②미국(58년 1월 에크스프롤라호, 뉴피터C로케트), ③프랑스(65년 2월 아스테리크A호, 디아만A로케트), ④일본(70년 2월 오오스미, 람다4S형로케트), ⑤중국(70년 4월 동방홍, 장정1형로케트), ⑥영국(71년 10월 프로스페로위성, 호주에서 발사), ⑦인도(80년 로히니위성), ⑧이스라엘(88년)등에서 각각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들은 이번에 로케트추진발동기(액체연료발동기, 고체연료용구형발동기)와 조종씨스템, 쎈서, 연료와 금속, 비금속재료, 발사대설비, 조종기술, 다계단로케트의 분리기술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자기 나라 기술로 만들어낸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있다. 특히 시발도 없이 단 한번의 발사로 성공시킨것은 특출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로씨야우주국 미로크부국장은 ≪로케트기술 그자체는 대단히 높고 놀랄만한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지원요청도 없었다.≫(이따르－따스통신 9월 5일)고 말하고있다. 남조선의 공학우주연구소의 유장수박사는 ≪〈북한〉의 위성, 로케트기술력이 세계 10위에 들어갈만하게 발전했다. 3계단식로케트는 가장 발전한 형태이며 쏘련의 스프토니크발사와 맞먹는 과학기술적충격이다. 제1계단이 동해에 떨어지고 제2계단이 태평양에 떨어졌다면 미싸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위성발사로케트이다.≫(중앙일보 9월 5일)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과학자들속에서는 지금 ≪북한우주개발의 중심인물, 천재우주과학자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한겨레인터네트 9월 12일)

또한 공화국이 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데 대하여 로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꾸바, 웽그리아, 뻬루, 적도기네, 탄자니아 등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은 ≪세계의 중대 소식≫, ≪아세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칭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2. 인공지구위성이 ≪미싸일≫로 왜곡되여

착잡하게 뒤엉킨 ≪미군정보≫

≪탄도미싸일≫소동발단의 시작은 미군 요꼬다기지에서 나온 조기경계정보였다.

8월 31일 오후 12시 15분 방위청 중앙지휘소에서 ≪북조선이 일본을 향하여 탄도미싸일을 발사하였다≫는 록음테프에 의한 일제통보가 있었다. 같은날 12시 50분, 오부찌수상에게 이 ≪제1보≫가 전해졌다.

그리고 오후 2시경에 또다시 재일미군에서 ≪대포동미싸일이 일본렬도상공을 지났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그후 ≪한국국방부정보≫, 모스크바정보 등이 련속적으로 들어온것이다.

결국 재일미군에서 나온 ≪제1보≫와 ≪속보≫가 ≪북조선의 대포동미싸일발사≫설을 혼자걸음시켰다.

일본정부에서는 이날 저녁부터 ≪북조선,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단정하면서 공화국에 대해 ≪엄중항의≫를 되풀이 표명하였으며 일본의 텔레비나 신문들도 ≪북조선미싸일, 상리꾸오끼착탄≫이라고 떠들어댔다.

같은날 오후 11시 15분넘어 방위심의관은 기자회견에서 ≪상리꾸오끼 수백키로메터의 태평양공해상에 미싸일이 착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2계단식 대포동미싸일발사≫라고 단정한것이다.

더우기 ≪제1보≫에서는 ≪착탄예정지역은 일본해 우라지오스톡크남방, 북위 40도 54분, 동경 134도 03분, 시각은 0시 12분≫이라고 하면서 ≪속보≫에서는 그것이 수정되여 ≪제2계단과 탄도가 재일미군 미사와기지의 북동 580키로메터의 태평양상, 북위 40도 11분, 동경 147도 50분에 착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수자≫도 공화국이 발표한 수자하고는 일치되는것이 없었다.

일본정부의 과잉반응

일본정부당국은 9월 1일, 안전보장회의의원간담회(같은날 오전 소집, 수상, 외상, 관방장관, 방위청장관 등 각료 9명과 자위대제복조우두머리가 참가), 자민당 외교, 국방부회합동회의(동 저녁)를 열고 저녁에는 공화국에 대한 ≪엄중항의, 국교정상화교섭과 식량

지원의 재검토, KEDO의 동결≫을 골자로 한 ≪정부방침≫을 결정하였다. 각 정당들도 일제히 항의담화를 발표하였다. 9월 2일에는 공화국과의 직행비행기편도 취소하는 ≪제재≫조치까지 취하였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9월 3일 오전 11시를 넘어서 노나까 히로무관방장관은 ≪2번째의 발사도 있을수 있다≫는 ≪미군정보≫를 또다시 밝혔다. 결국 이 ≪정보≫도 근거없는 허튼 소문이였다는것이 후에 밝혀지기는 하나 이것은 일본국내의 반공화국감정을 한층 부추기는것으로 되였다.

같은날 중, 참 량의원은 ≪북조선의 비우호적이며 무모한 폭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항의≫를 전회의일치로 결의한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마치나 청일전쟁개시를 결의한 제국회의를 방불케 하는것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도 나오고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과잉반응≫, ≪돌출성≫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있으나 일본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다름이 없었다.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묵살

9월 4일 공화국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성공을 발표하였다. 같은날 로씨야의 우주비행추적쎈터는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이 지구의 주회궤도에 올라탔다는것을 확인하여(이따르-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사도 발사성공을 알리였다.

≪미싸일발사≫소동의 장본인인 미국에서도 ≪위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NASA(미공항우주국)나 미국정부고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안그렇다고도 말못한다≫, ≪인공지구위성을 싣고있었을 가능성도 부정 못한다≫ 등의 견해가 발표되였다.

이쯤이 되여서야 겨우 일본의 일부 군사, 외교 전문가나 우주과학자들중에서도 위성발사의 가능성은 부정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주과학연구소의 우에스기 구니노리교수는 ≪북조선의 자료가 옳으면 미싸일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이라고 해도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며 우주개발사업단네트워크기술부의 사와베 미끼오씨는 ≪궤도계산상 이상한 점은 없다. 위성분리점에서 초속 9키로메터의 속도가 확보되면 이 궤도에 들어간다. 근지점이 낮고 대기하고의 마찰에서 영향을 받을수 있으나 발표대로라고 하면 한달쯤은 없어지지 않고 지구주회궤도에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미싸일≫설에 매달려

그러나 4일 밤 이끼야마 아끼히로방위청사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에서 인공지구위성발사라 결론짓는 정보는 얻지 않고있으며 2계단 미싸일발사라는 견해를 변경할 정황으로는 못된다≫고 설명하였으며 5일 오전 오부찌수상도 ≪각 성, 청의 보고에서는 그런 사실(인공위성발사)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에서 일본정부 부내나 정당속에서는 TMD(전역미싸일방위), BMD(탄도미싸일영격) 구상의 조기실현, 군사정찰위성(다목적위성)도입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구체적인 행동이 급속히 진척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것은 일본의 태도이다.

≪인공지구위성의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미국은 인공지구위성이라는것을 념두에 두고 분석중≫이라는 말이 나돌고 중국의 심국방차석대사가 ≪조선은 인공위성이라고 말하고있으며 조일 두나라간에서 협의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안보리에서의 ≪항의결의≫를 기각해버리는 정황속에서도 일본외무성이나 정부수뇌는 오히려 ≪인공지구위성이든 미싸일이든 일본에 있어서의 위협임에 다름없다≫고 발뺌을 치기 시작한것이다.

NASA, 미국무성도 확인

9월 10일 미상원외교위원회의 토마스 동아세아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미공항우주국(NASA)은 북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웠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던 미국무성까지도 자료분석의 검토회의를 연 토대우에서 9월 11일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9월 10일, 뉴욕에서 열리고있었던 조미고위급회담이 9월 5일 합의를 보았다. 여기서 량국은 조미합의문의 의무리행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측은 년내에 중유를 운반하고 11월부터 경수로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할것이며 인도적지원을 계속할것을 약속하였다. (9월 21일 미국무성은 공화국에 대하여 30만톤, 7250만딸라의 식량지원을 추가할것을 발표하였다.)

9월 14일 미국무성 루빈보도관은 위성의 ≪실패설≫을 암시하면서 ≪북조선은 소형의 인공지구위성 궤도진입을 시도하였다≫고 표명하였으며 같은 날 고엔미국방장관은 방미중의 자민당대표단에 KEDO거출금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새 가이드라인이나 TMD도입으로 일본을 얽어매는것과 동시에 자기 나라의 병기산업에 리익을 주기 위해 공화국과 일본에 대해 ≪교묘한 바란스외교≫를 하고있는것 같다. 일본의 정찰위성도입에 당초 난색을 표명한 미국은 지금 용인자세로 나아가고있다. 미국의 계산으로 보면 정찰위성은 1조엔, TMD는 수십조엔이 들것이라고 한다. 경기불황의 이 시기에 이상하게도 호경기적성격을 띤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야나이 슝지외무사무차관은 ≪인공지구위성이든 탄도미싸일이든 안전보장상 위협으로 되기에는 다름이 없다≫고 우겨대고있다. 더군다나 일본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유엔안보리보도성명≫(9월 15일)을 내는데 급급하여 그것을 ≪일본외교의 승리≫(고오무라외상)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내심은 ≪100% (미싸일이라고)단정은 못한다≫(외무성간부)고 안타까와 하고있는것 같다.

9월 15일 공화국외교성은 대변인성명을 내여 ≪조일관계는 랭각과 악화의 정도를 넘어 전쟁접경에 있다≫고 엄하게 경고하였다. 이것은 이번 사태를 ≪주변유사≫로 보고 그에 대처하는 ≪체제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견제한것이다.

뿐만아니라 17일에는 공화국 유엔주재대표부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이 지금까지 위성발사의 사전통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우리 나라만을 비난하는것은 유엔안보리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나쁜 전형이라고 지적하였다.

9월 24일 미일≪한≫외상회의는 일본의 강한 요구에 기초하여 ≪미싸일발사문제≫에 대한 대응을 묶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공지구위성≫설 립장을 표명하는 미≪한≫과 ≪탄도미싸일실험≫설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과의 구체적인 대책에서 그 차이는 크다.

일미관계설에 의하면 외무성고관이 미국정부에 대하여 ≪엄한 대북조선조치≫를 요구하였는는데 반대로 미국 고관측에서는 ≪평화안전을 위한 눈에 보이는 외교노력≫을 실시할것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추켜든 주먹을 언제 내릴것인가. 우선 ≪미싸일≫이라는 말을 ≪인공지구위성≫이라고 고쳐써야 할것이다. 모든것은 여기부터 시작한다.

≪1998년 9월 28일≫



≪광명성 1호≫는 지구를 돈다

조선의 과학자들, 인공지구위성 발사문제에 언급

이번 위성발사사업에 참가했던 ≪**김일성**훈장≫수상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원사, 교수, 박사 권동화는 오래전부터 소문없이 인공위성분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왔고 그 공업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여왔다고 하면서 인공지구위성 발사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인공지구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케트가 벌써 1980년대에 개발되였으며 인공지구위성연구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주석은 생전에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 때가 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90년대초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수 있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였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공화국창건 50돐을 앞두고 의의있게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것은 조선에서 소문없이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해온 이 분야의 과학기술과 공업의 위력을 조선인민과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지금까지 인공지구위성 제작기술과 발사기술을 소유한 나라는 중국, 로씨아,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불과 몇개 나라들뿐이다. 이번의 사변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이러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였다는것이 세계의 일치한 반영이다.

이번 인공지구위성발사에 관여한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한해철, 김행경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광명성 1호≫발사의 목적이 첫째로, 다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하여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 기술을 실현시키며 둘째로, 다계단운반로케트의 구조공학적설계와 조종기술을 완비하며 셋째로, 우주공간환경을 연구하고 우주공간환경속에서 전자장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가를 검증하며 넷째로,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운반로케트와 위성에는 해당한 탐측기재들이 설치되여있다.

이번에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주환경에서 필요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위성관측체계와 위성통신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였다.

이번에 위성발사장으로 선정된 화대군 무수단리는 로케트발사장으로 리용하는데 아주 적합한 지대이다.

그 유리성은 자연지리적으로 주민지대와 떨어져있고 동쪽으로 광활한 조선동해와 태평양이 놓여있으며 공업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로케트와 위성의 관측조건이 매우 좋은데 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번 위성발사의 비행자리길을 일본 혹가이도와 혼슈사이의 쯔가루해협방향의 상공으로 택하였다.

그리고 위성운반로케트에는 로케트가 비행도중 예정된 자리길에서 탈선되는 경우 안전지대에로 유도하여 자체폭파할수 있는 장치가 되여있었다.

위성발사자들은 8월 7일 무수단발사장에 도착하여 한주일동안 기재전개를 끝낸다음 부분련동시험과 종합련동시험에 들어갔다.

이에 토대하여 지난 8월 31일 12시 07분에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그때 ≪발사≫구령을 치고 총지휘했던 권동화동무는 당시의 긴장하면서도 자신심에 넘쳤던 심정을 오늘도 간직하고있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 분 5 3 초이다.

이 시간동안 마음을 조이다가 성공되였다는것을 알고 경애하는 장군님 만세, 강성대국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서로 부둥켜안던 일을 그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과학자들은 이번 성공을 놓고 우선 운반로케트의 신뢰성에 대하여 크게 자부하고있다. 이번 성공은 다계단운반로케트성능의 완벽성의 과시이다.

세계여론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운반로커트가 개발되였다는것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고있는것과 같다고 흔히 평한다.

그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진 운반로케트를 개발보유하는것은 인공지구위성발사의 관건의 관건을 이루며 어느 나라나 바라마지 않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공간의 평화리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지구위성의 개발을 위한 운반로케트분야의 기술과 공학에서 세계적수준에 있다고 자부하고있다.

운반로케트의 1 계단과 2 계단은 성능이 좋은 액체로케트발동기로 되여있으며 3 계단은 고성능고체연료를 가진 구형발동기로 되여있다.

로케트의 조종장치에는 콤퓨터를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고있다.

위성발사에 참가했던 과학자 김행경은 운반로케트가 리론적으로 예견했던 비행자리길을 따라 정확히 비행하였으며 궤도에 진입한후 위성의 모든 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위성의 장치들과 요소, 재료들이 매우 우수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들면서 인차 실용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과학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통신위성의 개발과 리용도 가능하게 되였다고 말하고있다.

이번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쏴올린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전자장치와 기계장치의 부분품들로부터 조종기술에 이르기까지 열, 백가지가 다 우리의것이며 100% 우리의 힘과 지혜,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이것은 막강한 경제토대와 높은 과학기술을 가진 우리 나라 국력의 과시로 된다.

과학자들이 소개한데 의하면 **김정일**총비서는 나라의 국력평가의 중요정수인 인공지구위성의 개발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왔다.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밑에 운반로케트분야의 기술이 198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인공지구위성개발분야가 새롭게 개척되게 되였다.

이 분야의 그쁜한 과학자, 기술자, 우주개발을 담보할수 있는 막강한 국력은 다 **김정일**총비서가 마련해준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금 자기 궤도를 따라 돌고있는 위성에서는 온도와 압력, 전원상태를 비롯한 탐측자료들을 보내오고있으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과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 7 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되고있다.

노래선률과 전신부호는 발사후 9 일동안 나오며 위성의 수명은 2년이상이라고 한다.

≪광명성≫의 이름을 가지고 태여난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은 지금 지구를 돈다.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케트발사시험략도에는 계단별 분리점과 락점이 표시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1계단분리점－시간 95초, 높이 35. 9km, 거리 19. 5km, 2계단분리점－시간 266초, 높이 204km, 거리 450. 5km, 위성궤도진입점－시간 293초, 속도 8980m / 초, 높이 239. 2km, 거리 587. 9km이다.

그리고 1계단락점은 거리 253km, 북위 40도 51분, 동경 132도 40분이며 2계단락점은 거리 1646km,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이다.



인공지구위성상식(1)

이번 위성은 앞으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것

로동신문 98/09/1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

태양의 둘레를 도는 별을 행성이라고 한다.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순서로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9개가 있다. 이 행성들의 둘레를 도는 별을 위성이라고 한다. 위성은 지구에 1개(달), 화성에 2개, 목성에 15개, 토성에 9개, 천왕성에 5개, 해왕성에 2개, 명왕성에 1개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천체들이다. 인공지구위성이란 인공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려 지구둘레를 돌게 만든것이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자면 공기가 없는 높이(지면으로부터 200키로메터이상의 높이)까지 강력한 운반로케트가 위성을 싣고 올라가야 하며 수평방향으로 초속 약 8키로메터의 속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인공지구위성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과 원심력이 비기면서 타원궤도(특수하게 하는 원궤도)를 따라 돌아간다. 이렇게 일단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는 궤도를 수정하거나 자세를 조종하기 위한 추진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자면 강력한 운반로케트가 있어야 하며 발사장과 발사설비, 인공지구위성을 조종하거나 인공지구위성으로부터 보내오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수신하고 분석하는 지상설비들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은 그의 사명에 따라 과학위성, 실용위성 및 군용위성으로 구분한다. 과학위성은 태양계를 연구하거나 우주공간을 조사하기 위한것이다. 실용위성은 다시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지구자원탐사위성, 항행위성, 측지위성, 전리층관측위성으로 구분할수 있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은 앞으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자료들을 얻기 위한것이다.

인공지구위성은 높이에 따라 저고도위성, 중고도위성 및 고고도위성으로 나눈다. 저고도위성은 높이가 수백키로메터로부터 수천키로메터인 위성이다. 중고도위성은 높이가 약 1만키로메터인 위성이고 고고도위성은 높이가 그 이상이 되는 위성이다.

위성이 지구둘레를 한바퀴 도는 시간을 궤도주기라고 한다. 그리고 위성이 지구표면에서 제일 가까운 점을 지날 때 그 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며 제일 먼 점을 지날 때 그 점을 원지점이라고 한다. 위성의 궤도주기는 지구중심으로부터 원지점까지의 거리에만 관계되는데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궤도주기는 커진다.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따라서 분류할수도 있는데 극궤도위성(태양동기위성), 정지위성(지구동기위성)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극궤도위성이란 인공지구위성이 지구의 북극과 남극상공을 지나는 위성인데 궤도를 적당히 선택하면 지구가 태양주위로 돌아가도 인공지구위성의 궤도면이 항상 태양쪽을 향하게 할수 있다. 이런 위성을 태양동기위성이라고 한다. 지구의 적도상공 약 3만 6, 000키로메터의 높이에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은 그 궤도주기가 24시간이 되여 지구자전주기와 같아지므로 지구에서 볼 때 적도상공의 한점에 늘 정지하여있는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를 정지위성이라고 한다. 적도상공에 완전히 정지되여있지 않고 북남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일수 있는데 이를 지구동기위성이라고 한다. 어떤 높이와 궤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인공지구위성의 사명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위성은 여러가지 관측기재들을 싣고 지구주위를 돌면서 멀리에서 지구를 관측할수 있고 지구주변공간의 상태와 우주공간을 관측할수 있다. 지구주변에는 공기, 중력, 자기마당 등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서 우주공간을 관측하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우주공간을 탐사하는것은 우주개발을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구위성은 과학위성으로부터 개발되였으며 그 다음에 실용위성이 개발되게 되였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도 우주공간의 물리적상태를 알아내기 위한것으로서 앞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통신위성에는 지상의 두지점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것, 인공지구위성과 지상사이의 통신을 보장하는것, 인공지구위성들사이의 통신을 보장하는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통털어 우주통신이라고 하는데 통신위성은 우주통신을 위한 인공지구위성이다. 방송위성도 지상의 텔레비죤방송이나 소리방송을 중계하는 통신위성의 일종이다.

기상위성은 일기예보를 더 정확히 하며 태풍의 발생과 이동을 알아내는 인공지구위성이다.

지구자원탐사위성은 원격측정에 의한 지구자원 즉 농업, 림업, 해양학, 수리학 등에 관한 자료를 탐사하는 인공지구위성이다.

항행위성은 태양, 별 등의 관측에 의하여 배나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히 통보하여주는 인공지구위성이다.

측지위성은 지구의 크기와 모양, 지구상의 각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지상에 통보하여주는 인공지구위성으로서 천체의 관측, 항행의 안전성담보 및 인공지구위성의 발사계획과 관측에 없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이밖에도 지구를 며칠간 돌면서 관측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회수위성, 지구인력권을 벗어나 다른 행성에로 가는 탈출위성들이 있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자면 인공지구위성자체를 잘 연구하고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그 시험을 잘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운반로케트기술이 발전하여야 하며 발사장과 발사설비 그리고 지상에서 인공지구위성을 관측, 조종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지상설비들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자면 체계공학, 믿음성분석, 원격측정, 원격조종,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포착, 인공지구위성의 궤도와 자세조종, 지상안테나와 위성안테나, 위성용전원, 위성의 열설계와 온도조종, 위성의 구조설계와 구조재료, 여러가지 관측장치들, 우주환경연구와 우주환경의 지상모의시험방법, 지상과 위성의 콤퓨터망형성, 자료전송문제 등 넓은 분야의 최신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이번에 우리는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모든 최첨단기술을 완전히 개발, 소유하였을뿐아니라 그를 안받침하는 강위력한 경제력이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인공지구위성상식(2)

위성발사성공은 공화국 로케트공업의 높은 수준을 과시

로동신문 98/09/1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

인공지구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리자면 운반로케트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이 지상으로부터 자체로 날아올라 우주공간에 들어설수는 없다. 따라서 인공지구위성은 로케트에 의하여서만 우주공간의 자기 궤도에 진입할수 있다.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케트를 운반로케트라고 부른다.

인공지구위성은 수십키로그람으로부터 무거운것은 수톤이 되는것도 있다. 이것을 머리에 이고 우주공간에 날아오르자면 참으로 막대한 힘이 필요하다. 인공지구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의 초속도는 높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나는데 대략 초당 8키로메터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속도는 총알의 속도보다 아주 빠른것인데 인공지구위성이 높은 고도에서 이러한 속도를 가지게 한다는것은 대단히 큰 힘을 가진 운반로케트가 없이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지상에서 달리는 자동차나 공중을 나는 비행기들은 모두 연료만을 싣고있으며 그를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는 공기중에서 얻는다. 그러나 운반로케트는 공기가 없거나 매우 희박한 공간에서 날아야 하므로 자체로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로케트라는 말은 로케트발동기를 장비한 비행체라는 말로 리해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돌을 가득 실은 뽀트에서 돌을 집어던지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뽀트는 돌을 집어던진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전진한다. 이러한 원리를 리용하여 전진하는 비행체를 로케트라고 한다. 로케트의 연료와 산화제로서는 흔히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쓴다.

액체연료를 쓰는 로케트에는 연료와 산화제가 쓰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발사한 인공지구위성은 추진제와 산화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해결하였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의 운반로케트는 여러 계단으로 되여있으며 특히 3계단은 높은 성능의 고체연료를 썼다. 고체연료를 쓰는 로케트발동기는 액체연료를 쓰는 로케트발동기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복잡한 부차적인 가동부분이 없으며 큰 구형연소실에 고체추진제가 장진되여있다. 여기에 점화장치가 있고 연소실과 분출구가 련결되여있다.

액체연료를 쓰는 로케트는 발사직전에 발사장의 저장고로부터 연료와 산화제를 보급받아야 한다. 만일 발사가 지연되면 이 연소제, 산화제를 뽑아버리고 다음번 발사직전에 다시 주입해야 한다. 그러나 고체연료는 추진제가 연소실에 충전되여있으며 구조가 간단하여 취급에 편리하다.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운반로케트는 다계단운반로케트로 되여야 한다. 다계단운반로케트란 연료와 산화제 및 발동기로 이루어진 로케트를 여러개 련결한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제1계단로케트가 다 연소된 다음 그를 떼여버리고 제2계단로케트가 동작하다가 다시 제2계단로케트가 연소되면 그를 떼여버리고 제3계단로케트가 동작하는것과 같이 여러 계단의 로케트로 이루어진 로케트를 의미한다. 다계단운반로케트처럼 다 연소된 부분을 떼여버리면서 날아가지 않고서는 높은 속도를 얻을수 없다. 다계단운반로케트 개발에서 성공하자면 계단분리 및 2차점화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운반로케트의 추진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여 예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공간에서 로케트의 위치, 속도, 자세 등을 검출하여 그것들이 예정된 값과 차이나는 경우 그를 수정하기 위하여 로케트를 어떻게 조종하여야 하는가를 계산하여 조종구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로케트가 자기 속도에 도달하면 로케트의 연소를 차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반로케트는 해당한 높이와 속도에 도달했을때 지구겉면에 수평인 자세로 인공지구위성을 분리하지만 탄도로케트는 마지막구간에서 지구수평면에 대하여 40~45도의 자세로 탄두를 분리하여 자유탄도궤도를 따라 운동하다가 목표를 타격한다. 이와 같이 운반로케트와 탄도로케트는 비행자리길이 서로 차이난다.

우리 나라에서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운반로케트는 우리 나라 로케트공업의 높은 수준을 과시한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로케트공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1980년대에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인공지구위성상식(3)

인공지구위성관리설비를 갖춘것은 강위력한 경제력의 표시

로동신문 98/09/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자면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인민경제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지상설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공지구위성을 운반로케트에 싣고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설비와 운반로케트를 추적하기 위한 설비, 인공지구위성이 분리된 다음 그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설비, 인공지구위성과 지상을 련결하는 설비 및 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지상설비들이 속한다.

로케트발사장은 로케트를 쏘아올리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로케트발사장에는 발사대와 발사를 조종하는 조종소가 있으며 관측 및 추적을 하는 관측소 그리고 이것들을 총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소가 있다. 이외에도 전원 및 물원천이 있어야 한다.

발사장지대는 발사방향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넓고 평탄한곳이여야 하며 주변에 안전구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상 도시근방은 피하여야 하며 비교적 외진곳을 택한다. 그러나 수송조건과 통신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발사장이 넓고 평탄한곳에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산이 많고 령토가 비교적 작으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만한곳으로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가 속한다.

운반로케트의 각 계단이 완성되면 발사장으로 운반하여 필요한 검사와 조정작업을 한후 발사대에 조립설치한다. 그다음 최종조정작업을 한뒤에 연소제와 산화제를 보급한다. 그러므로 발사장에는 이러한 작업을 할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발사대는 로케트의 조립으로부터 발사까지의 작업을 진행하는 설비이다. 운반로케트는 대부분 수직발사를 한다. 정비탑과 발사대는 하나의 구조로 되여있으며 발사대밑에는 화염편향판이 있어 로케트를 발사할 때의 고온고속의 가스로부터 발사설비들과 로케트본체의 손상을 막는다.

로케트를 조립하고 검사하는데 정비탑이 리용된다. 정비탑에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다. 이동형은 발사기 뒤로 물러난다. 정비탑우에는 기중기가 있다. 정비탑의 높이는 로케트의 길이보다 약간 더 높다.

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어진 시각에 발사해야 하며 계측 및 추적 등의 발사작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발사조종소가 있다. 계측, 추적 등의 발사준비작업과 기상상태 등을 장악하며 발사후의 감시 및 조종을 위하여 지령소가 있다.

로케트를 계측하기 위하여 무선원격조종설비를 쓴다. 발사장에는 무선원격수신기가 있으며 이는 로케트에 설치된 무선원격송신기로부터 송신하는 가속도, 진동, 자세각, 발동기내부 압력 및 각 부분의 온도 등의 자료들을 수신한다. 이것은 로케트의 비행의 정상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할뿐아니라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로케트를 안전한 구역에로 유도하여 비상폭파시키는데도 필요하다.

로케트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통 많이 쓰이는것은 전파탐지기이다. 이 방법은 송수신장치를 로케트에 설치하여 지상의 전파탐지기에서 보내온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여 다시 송신하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케트의 유효반사면적이 작은것을 보충하여 지상전파탐지기가 멀리까지 로케트를 감시하고 측정할수 있다. 전파탐지기신호를 전자계산기에 넣어주어 실시간으로 자료처리를 하여 표시판에 로케트의 비행궤적과 여러가지 자료들을 연시한다.

또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을 광학적으로 감시한다. 광학관측에는 고속도촬영기와 천문망원경 등이 쓰인다. 광학관측에 의하여 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의 궤도를 알수 있다.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제작공장에서 여러번 측정하여 완전하다고 할 때 발사장으로 수송한다. 발사장에서는 운반로케트의 각 계단들과 인공지구위성을 시험한후 조립한다. 조립후에 종합적인 시험을 진행하고 발사직전에 다시 시험을 진행한다.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비들을 발사장시험설비라고 한다.

이밖에도 운반로케트의 연료, 고체화약발동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고 등이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물, 전력, 수송, 인원들의 생활조건들을 비롯한 발사장지원설비들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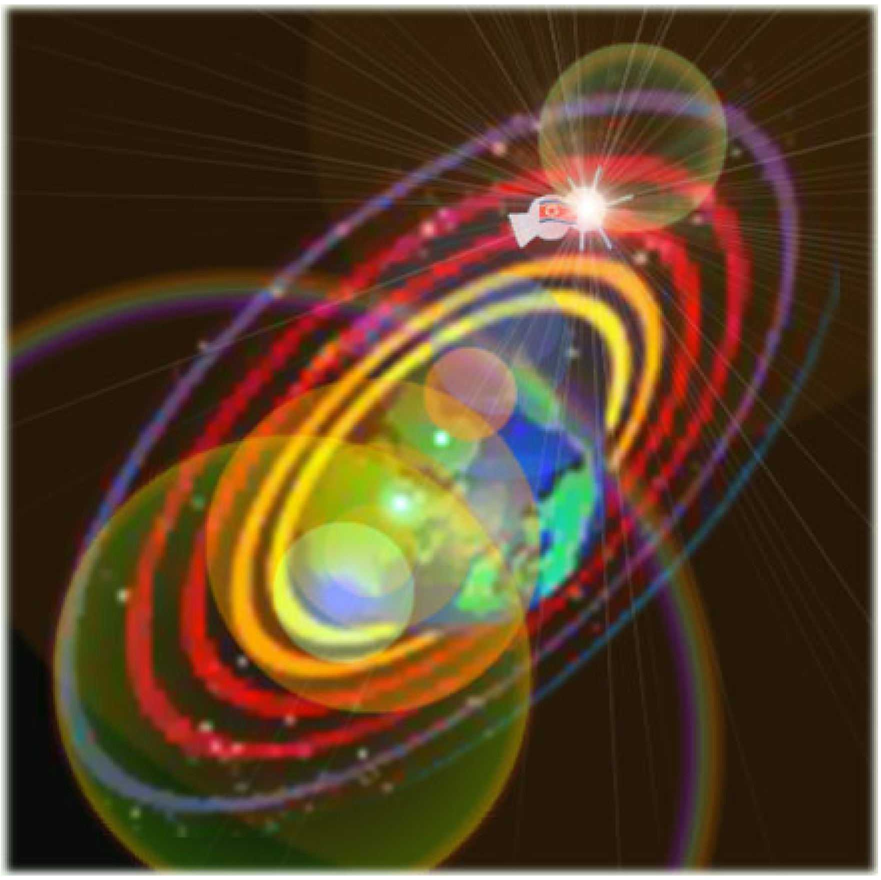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다음에는 인공지구위성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인공지구위성의 지상설비에는 인공지구위성으로부터 보내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그에 실려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설비, 인공지구위성의 궤도 및 자세를 측정하는 설비, 인공지구위성에 필요한 구령을 보내는 설비들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형특수안테나가 있어야 하며 높은 감도의 수신기, 실시간자료처리를 위한 전자계산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인공지구위성이나 운반로케트를 연구하고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많다. 이처럼 과학기술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설비를 갖춘 나라는 불과 몇개밖에 없다. 이런 지상설비를 갖추었다는것은 우리 나라가 강위력한 경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개발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여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성공에로 령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지구를 100바퀴 돌았다

조선중앙통신 9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자면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주개발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지금 예측된 자기 궤도를 따라 지구주위를 돌고있다.

지난 8월 31일 12시 07분에 발사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는 9월 13일 8시 24분부터 11시 17분사이에(평양시간) 지구주위를 100바퀴째 돌았다. 인공지구위성은 100번째주기를 돌 때 우리 나라 상공을 220키로메터 높이에서 통과하였는데 11시 17분현재 황해북도 사리원상공을 지나 11시 18분에는 남조선강원도 강릉상공을 지나갔다. 흔히 220키로메터정도 높이의 상공에서 인공지구위성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육안으로도 관찰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100번째주기로 위성이 우리 나라 상공을 통과한 시간은 대낮이였으므로 낮에 별을 볼수 없듯이 육안으로 관찰할수 없었다. 그렇지만 과학기재들에 의해 위성의 우리 나라 상공 통과는 정확히 관측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는 100번째 주기에 태평양상의 미국 하와이섬의 북부상공을 지나 칠레,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남미주상공을 거쳐 대서양을 날아 나미비아, 앙골라, 민주꽁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중국을 통과하여 우리 나라 상공을 지나갔다.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인민의 기쁨이 온 나라에 넘쳐나는 때에 우리 나라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100번째 주기를 성과적으로 돈것은 국력과 높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인류의 첨단과학분야인 우주개발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는 자랑스러운 사변으로 된다.

위성은 우리가 위성발사를 세상에 공개한 9월 4일에는 33번째주기를 돌았다. 위성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뜻깊은 9월 5일에는 39번째 주기를 돌았다. 위성은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9월 9일에는 69번째 주기를 돌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는 10월초경 육안으로 관찰할수 있는 시간에 우리 나라 상공을 통과할것으로 예견된다.

우주의 ≪혜성≫

최백 (우주공학 박사)

북의 인공위성발사 소식에 온 지구촌이 끓고 있다

북의 미사일발사설이 나온지는 여러 해 되지만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대국들만이 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쏴올린 것은 기상천외한 일이다.

나는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에 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심층투시해 본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단방에 성공

인간이 우주정복의 부푼 꿈을 안고 로켓을 날려온 역사는 두세기를 가까이 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쏴올린 역사는 반세기도 되지 않는다.

이 역사의 갈피속에 기록된 세계 위성발사 실태를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다. 특히 최초의 인공위성발사에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방나라들에서 쏴올렸다고 하는 첫 인공위성들인 미국의 ≪뱅가드TV 3≫, 일본의 ≪라므다-4S-1≫, 유럽우주기구의 ≪ESRO-2A≫는 모두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시험위성 발사단계에서 이 나라들의 실패회수를 보면 미국은 9회, 일본은 4회, 유럽우주기구는 10회나 된다.

일본≪아사히연감≫에 따르면 인공위성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1958년에 17개중 10개, 59년에는 20개중 9개, 60년에는 31개중 14개, 61년에는 46개중 12개가 실패했으며 62년 1월에는 7개중 6개가 실패했다.

이런 사실에 연유하여 사람들은 흔히 일에서 실패하면 ≪뱅가드계획≫이라 꼬집는다. 이 유모어는 미해군의 위성 ≪뱅가드≫발사계획이 실패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뱅가드계획≫에 따라 57년부터 3년동안 위성을 11회나 쏴올렸지만 성공한 것은 겨우 3회 뿐이었다. 60년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함께 혹성탐사를 위해 26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18회나 실패함으로써 이것역시 ≪뱅가드계획≫으로 되고 말았다.

실패는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연간에만도 러시아에서 우주비행사를 실은 우주왕복선의 대사고, 미국 ≪아폴로≫위성의 대사고, 지난 9월10일 ≪제닛트-2≫로켓에 실려 발사된 미국통신위성 ≪글로벌 스타≫의 사고는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닛트-2≫로 말하면 중형로켓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가장 완비된 최신형으로 광고되었었다. 그런데 30회의 발사 가운데서 7회나 실패한데 이어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결국 최초의 성공적인 인공위성발사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북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했으니 이것은 대국들의 허장성세를 보기 좋게 눌러버리고 주체강국의 위상을 우주에 선양한 경이적인 사변이라 할 수 있다.

실로 단발성공의 위성발사는 이북이 과학문명시대인 20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쾌거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21세기를 마중하는 인류에게 우주정복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역사적 장거라 할 것이다.

1백%의 국산화

인공위성 개발에서 1백% 국산화란 말은 사실상 신화적인 용어로 통하고 있다. 그것은 인공위성 개발자체가 막강한 기술인력과 고도의 기술수단, 많은 자금, 강력한 자립산업의 뒷받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하나만 보더라도 연구원 수가 적어도 인구가 1만명당 15~16명선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공위성은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만큼 그 개발은 필연코 이 분야의 고급두뇌진을 요구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남 먼저 위성발사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은 2차 세계대전시기 독일의 로켓공학기술자들과 그들이 제작한 최초의 로켓 ≪V-2≫형을 획득한데 있었다.

인공위성개발은 또한 막대한 자금투자를 요하는 국력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더라도 위성 1개를 제작,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는 수억달러가 든다.

인공위성에는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신소재들, 발열량이 높은 연료제와 산화제, 최첨단 전자제품들과 1만 수천 가지의 기기품들이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려면 현대적인 금속, 화학, 기계, 전자 산업분야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자립산업이 있어야 한다. 운반체의 강도를 보장하자고 해도 수만톤급의 프레스가 있어야 하고 산화제의 순결도를 보장하자고 해도 정교한 원소분리기들이 있어야 하며 연료탱크의 기술적 요구를 보장하자고 해도 특수강질의 초고압탱크와 압축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을 1백% 자체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오늘 지구촌에는 여러 개의 위성자립국이 있다고 하지만 위성의 모든 요소들을 1백% 자기의 것으로 생산제작해 발사한 나라는 없다.

처음으로 지구 궤도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인공위성들인 미국의 ≪엑스플로러뭅?귀화한 독일인 폰 브라운 등에 의해 개발된 ≪주피터≫로켓에 실려 발사된 것이며 프랑스의 ≪프랑스1-A≫와 유럽우주기구의 ≪HEOS-1≫은 미국과 공동으로, 일본의 ≪오오스미≫는 미국로켓기술로, 영국의 ≪에리알≫(S-51)과 나토의 ≪나토-1≫은 미국의 로켓으로, 독일의 ≪디아르≫는 프랑스 로켓으로 쏴올린 것들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인공위성 초대국들인 미국과 러시아는 특수금속재들을 독일에서, 정밀계기류들은 스웨덴에서 수입하고 있다. 상업위성국의 제왕으로 자처하는 프랑스도 유도장치는 벨기에에서, 원격송수신장치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조립하고 있다.

위성개발국들이라고 하는 일본, 독일, 영국도 그 부품들은 자국산

보다 외국산이 더 많다.

다른 인공위성 보유국들의 경우에는 타국과의 협력으로 위성을 개발하거나 통째로 사다가 자국자호를 붙여 쏴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캐나다의 ≪ISIS-1≫은 미국의 발사장에서 미국의 로켓으로 쏴올린 것이며 이스라엘의 ≪오페크≫1, 2는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기구의 도움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동으로 조립한 것이다.

그런데 이북에서 쏴올린 인공위성은 설계로부터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산업으로 실현된 1백% 국산화된 것이라 한다.

더욱이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기술과 직결된 것이어서 어느 나라에서나 엄격한 수출규제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북의 경우에는 서방세계의 철저한 기술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받고 있어 어느 나라로부터도 기술이나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주협회 부총재는 러시아가 이북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이북의 인공위성 제작, 발사에 협력한 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다.

그렇다면 이북의 인공위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력갱생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식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슬로건을 삶의 신조로 삼고 ≪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하는 이북의 참모습을 깊이 새겨보게 된다.

참으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위성이 떠돌고 있지만 1백% 제힘으로 개발된 위성은 오직 하나 ≪광명성 1호≫뿐인 줄로 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

인공위성은 현대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그것은 그 개발이 물리학, 수학, 화학, 천문학 등 기초과학분야는 물론 지구물리학, 전자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기계공학, 유체역학, 탄도학, 연료학, 재료역학, 연소이론, 자동제어이론 등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의 총집산으로 이루어지는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기술수준이자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북에서 쏴올린 인공위성은 과학기술면에서도 북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나는 추진체와 유도장치, 제어기술과 통신설비 그리고 인공위성의 수명문제를 놓고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인공위성 개발발사에서 관건문제는 추진체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을 지구의 공기저항권을 벗어나 고도 2백킬로미터 이상되는 우주공간의 궤도에 진입시키자면 초속 8킬로미터의 제1우주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3천5백도의 열에 견디어내는 특수엔진을 제작해낸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단계로 연결된 로켓들이 순차적으로 연소되어 자동적으로 분리되고 다른 것이 시동되는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국들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문제이다. 바로 수십년의 인공위성 개발역사를 갖고 있다는 미국이 86년 1월에 쏴올린 우주왕복선 ≪첼린저호≫도 고체연료로켓의 탱크폭발로 발사된지 73.621초만에 공중폭발되고 말았다.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선진국들로 구성된 우주기구도 1단엔진은 영국이, 2단엔진은 프랑스가, 3단엔진은 독일이 맡아 제작하여 조립하기로 했으나 1단과 2단 사이의 분리, 시동에서의 거듭되는 실패로 로켓개발을 단념하고 그것을 발사체 보유국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쏴올린 ≪라므다 4S-1≫도 2단분리, 시동사고로 실패했다.

그런데 이북이 이번에 다단로켓을 자체의 기술로 개발해 인공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1, 2단은 액체연료이고 3단은 고성능 고체연료이면서 최신형인 구형엔진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분리, 시동, 작동도 사전에 계산된 수치에 따라 정확히 되었다. 이것은 이북의 로켓개발기술의 완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과학기술공학이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성개발에서 또 하나의 중핵적인 문제는 유도장치와 제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형성된 초현대적인 원격제어장치들과 최첨단기술이 도입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성대국들이 인공위성개발에서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것도 이 구성요소들이며 사고율이 가장 큰 점도 바로 이것들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발사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고도 그리고 전자기술분야에서 제노라고 하는 일본이 쏴올린 ≪카파 4호≫의 사고도 바로 유도장치의 고장과 제어기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첫방에 성공한 이북의 위성은 사전에 계산된 궤도로 정확히 비행하여 지구궤도에 들어서서 돌고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을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시간과 발사각도, 고도를 변경시켜가면서 자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또한 인공위성은 자기 궤도에 들어섰다고 해서 저절로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 변하는 지구와 달, 태양의 인력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하전미립자의 영향으로 인공위성의 자세와 위치가 수시로 흐트러지게 된다.

일본의 ≪라므다 4S-4≫가 자기 궤도에서 이탈하여 떨어지게 된 것도 바로 4단자세제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북의 지상관측소는 우주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태만상을 정확히 포착해가면서 위성의 자세와 위치를 바로잡아가며 자기 위성에 대한 관측일지와 예보까지 세상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이북이 자기 식대로 개발한 유도장치의 성능이 완전무결할 뿐 아니라 제어기술이 최상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위성의 임무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과학위성인 경우에는 우주공간의 각종 탐측자료들을 지상관측소에 보내주는데 있다.

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인공위성과 지상관측소 간에 초현대적인 컴퓨터송수신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선두주자로 자처하는 일본이 다섯번째만에 겨우 성공한 ≪오오스미≫위성의 전파송신시간은 30시간으로 예정하였으나 15~16시간만에 전파가 두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북이 처음으로 쏴올린 ≪광명성 1호≫에서 울려 퍼진 위인들에 대한 송가전파만도 9일 동안 계속 전송되었다.

이것은 이북의 교신네트워크가 위성과 하나로 결속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사실을 놓고 한국의 언론계에서는 기술적 면에서 80년대에 이미 1백50미터의 주체사상탑 탑신위에 45톤의 봉화를 올려놓는 건축공법으로 일본의 어깨를 딛고 올라섰던 이북이 90년대에 일본위성보다 2백시간이나 더 긴 위인송가송신으로 그의 정수리를 딛고 올라서게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민족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위성의 수명은 그의 재질과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전문가들의 박약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북인공위성의 수명이 2년 이상으로 공시된 것이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쏴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Ⅰ≫의 수명이 3개월, ≪스푸트니크 2≫의 수명이 5개월, 미국 ≪오로라≫(MA-7)의 수명이 4시간 56분, ≪디스카버리≫1, 2의 수명이 각각 2일간,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1, 2의 수명이 각각 9개월, 6개월, 유럽우주기구의 ≪ESRO-1B≫의 수명이 54일, 오스트레일리아 ≪레사터-1≫의 수명이 43일간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북위성의 수명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이같은 수명을 갖는다는 것은 위성의 소재와 전원, 제어시스템의 기술상태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광명성 1호≫의 모든 기술적 성능은 최상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놓고 이북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을 모르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든든한 뱃심으로 강행군을 해나가고 있는 참의미를 깨닫게 된다.

자주정치의 소산

이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미국이 전율했고 일본이 기절했으며 청와대가 혼비백산했다

사실상 미국은 자기들의 전례에 따라 5년전에 ≪노동 1호≫를 시험발사한 이북이 다음번에 중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발사된 것은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위싱턴의 상공을 날아도는 인공위성이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유일초대국으로 우상화해온 미국의 정보신화가 산산조각나게 되었다. 첩보위성으로 ≪지상의 15센티미터의 물체까지 포착≫할 수 있고 ≪배구공과 농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던 미국이 이북에서 발사된 것이 인공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하는 것조차 식별못했으니 이 얼마나 가관인가. 미국정계에서는 이 사실을 놓고 이것은 파키스탄의 핵시험을 사전에 포착못했던 것보다 더 큰 실책이라는 비명이 울려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 던져주는 잘못된 사주정보에 따라 알레르기성 ≪미사일발작증≫을 일으킨 것은 더욱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본당국은 이북의 위성발사에 겁을 먹었으면 묵묵부답으로 가만있기라도 하는 편이 나았으나 공연히 탄도미사일트집을 부려 세상사람들을 웃기고 망신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아직 ≪정치난장이≫라는 세론의 평을 면할 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간의 차이는 기술적 간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있다. 인공위성의 각도와 탄두를 바꾸어놓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 이것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만일 적들이 건드린다면 지구상의 어디에 있건 섬멸적인 타격을 안길 것이다≫라고 한 평양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공위성개발이 국력평가의 정수인만큼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제작발사했다는 것은 무엇이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북은 사상대국, 정치대국, 군사대국, 과학기술대국의 위상을 겸전하고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북의 성공적인 인공위성발사는 한국일간지들이 정평한 것처럼 ≪강성대국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축도≫이고 ≪세계 7대위성국서열에 진입한 사변≫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두고 남북을 대비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도 20여년전부터 인공위성 개발에 모질음을 쓰며 기술구걸의 길에도 나서보았으나 맛본 것은 차디찬 냉대뿐이었다.

간난신고끝에 7차에 걸쳐 단거리유도미사일시험을 했다는 것도 모두 실패로 주저앉아 버렸다. 미국의 설계와 기술, 연료혼합기술로 짜깁기해 발사했던 로켓도 한번은 계산된 고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실패했고 또 한번은 발사된지 20.8초만에 연기와 함께 바닷속에 곤두박히는 쓴 맛을 보았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남의 인공위성을 사서 남의 발사장을 빌려 시험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남의 사대정치하에서는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고 인공위성의 국산화에 대해서도 엄두를 낼 수 없음을 나는 체험으로 절감했다.

자기 결심에 따라 과학기술도 연구개발하지 못하고 ≪미사일주권≫마저 빼앗긴채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체제에서 어찌 인공위성의 국산화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북에서의 인공위성 발사성공은 바로 자주정치의 소산이다. 세계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단독고전으로 맞선 정치, 군사적 대결장에서 어제는 ≪노동 1호≫를, 오늘은 ≪광명성 1호≫를 꽝꽝 쏴올리는 이북의 담대성과 경이적 대성공은 백두산같은 담력과 뱃심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자주자활의 주체노선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제국주의의 끈질긴 봉쇄와 압살정책하에서도 인공위성발사와 같이 서방을 빰치는 북의 이 위용이야말로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자주정치의 위인만이 세우실 수 있는 현대역사의 대기념비이다.

우리 이남이 살아갈 길은 오로지 자주에 있다. 자주에 통일도 있고 번영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북의 ≪광명성 1호≫가 가르쳐주는 참의미이다.



≪광명성≫강국 새세기를 연다

공화국 칭송

(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치평론가 장영준이 ≪≪광명성≫강국 새세기를 연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북의 위성발사가 국제사회에 던진 대파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산되고있다. 충격과 경탄, 신비와 선망을 자아내며 만국을 감동시킨 북의 위성발사는 분명 7천만 겨레에게 무한의 긍지와 자부를 심어주는 민족사의 일대 쾌거이다.

인공위성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이고 국력의 종합체이다.

자력의 ≪도술≫로 세기를 주름잡아온 북이 이번에는 세상을 깜짝놀래운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로 경제와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올라선 강국임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남들이 직승기와 땅크를 만들 때 풀무로 농쟁기를 벼리던 우리 민족을 불과 반백년사이에 만국의 정상에 끌어올린 현대의 강국신화를 창조했다.



북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상과 정치의 대국으로 존엄높다.

령도자와 국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력사를 견인해온 북이다. 사상과 정치의 힘이 발산하는 거대한 위력은 경제력이나 군력에도 비견할수 없을것이다. 마음먹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내는 자력의 ≪도술≫도, 아무때나 단호한 결심을 내리는 특유의 배심도, 국민 모두가 신념의 강자, 창조의 명수로 된 초인적기상도 사상이 위대하고 정치가 대범해서이다. 그 무쌍한 위력에 이번의 인공위성발사를 성공케한 비결도 있다.

북의 위성발사는 단군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통쾌하게 펼쳐보인 민족의 흐뭇한 대경사이다.

≪광명성≫위성은 민족의 재보요 겨레의 공유물이다. 미일의 부품이나 기술이 없이는 땅크 한대 조립하지 못하는 ≪한국≫위정집단으로서는 과거를 부끄럽게 돌이켜보고 민족의 긍지를 드높인 북에 갈채를 보냈어야 마땅하다.

21세기는 ≪광명성≫강국주도의 새 세기로 될것이다.

21세기 인류가 숭상할 철학사상이 ≪광명성≫강국의 주체사상에서비쳐오고 21세기 세계가 지향할 정치가 ≪광명성≫강국의 자주정치에서 제시되고있다. 21세기의 평화도 ≪광명성≫강국의 군력에 의해유지되고 지구촌의 국리민복도 ≪광명성≫강국의 자립총서에 의해 도모될것이다.

≪광명성≫강국은 **김정일**강국이다. **김정일**령수에 대한 존칭의 상징인 ≪광명성≫은 그 이름 그대로 빛이요 힘이며 열이다. 태양의 그 빛은 세계를 밝히고 태양의 그 인력은 력사를 견인하고 태양의 그 열은 만민을 품어준다. ≪광명성≫광휘속에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강성대국의 영광찬 미래가 밝아오고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 관찰자들은 말한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관찰자들의 반향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관찰자들은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것입니다.≫

본사편집국으로는 10월 3일과 4일 새벽 우리 나라 상공을 날아지나간 우리 나라의 첫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조선상공을 날으는 ≪광명성1호≫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계를 굽어보게 된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평양시에서

화학공업성의 한택성동무는 3일새벽 당창건기념탑 앞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명성1호≫가 지나가는것을 목격하고 환성을 터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빛발은 이름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만방에 시위하는듯싶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대국들과 어깨나란히 우주개발국대렬에 들어서고 지구를 굽어보게 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이제 머지않아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광명성)이 우주를 덮으리라는 확신이 굳어지고 보다 휘황할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신념이 더욱 든든해졌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발사소식에 접하여 흥분된 심정을 안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에 대한 노래의 가사를 썼다는 철도성 군중문화회관 관장 전병석동무는 ≪광명성1호≫를 직접 목격한 순간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세계여 보라, 우리의 위성, 우주를 날으는 우리의 별을, 주체의 강성대국위력의 상징을≫

남포시에서

남포시 항구구역 한두동 5인민반에 사는 전쟁로병 김병설동무는 하늘을 날으는 ≪광명성1호≫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우리 조국의 막강한 위력과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이 더더욱 커졌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날 변변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다계단운반로케트로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고 우주를 정복하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야말로 반만년 민족사의 기적이고 인류사에 기록될 사변중의 사변이다.

100프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쏴올린 (광명성1호),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위력과 잠재력이 낸은 자랑스러운 산물이다.≫

온 가족이 떨쳐나서 ≪광명성1호≫를 관찰하였다는 남포전극공장 지도원 박진규동무는 흥분된 심정을 억제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일본놈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두고 (탄도미싸일시험)이요 뭐요 한다는데 그들에게 단단히 말하고싶다. 우리집 아이들도 제눈으로 찾아보고 환성을 올리는데 네놈들에게는 눈이 아니고 뜸자리가 붙어있는가고. 눈이 붙어있으면 머리를 쳐들고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라고. 원쑤놈들이 뭐라고 줴쳐대도 조선의 위성은 네놈들을 조소하며 우주를 돌고있다.≫

해주시에서

해주제1고등중학교 도서실장 한복만동무와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인 그의 아들 한진명과 딸들인 황남공업대학, 해주고등화학전문학교 학생 한진옥, 한혜옥 그리고 황남공업대학 교원 김명준, 해주시연하동 4인민반 전쟁로병인 공화국영웅 리금철을 비롯한 해주시안의 많은 인민들이 ≪광명성1호≫를 보고 그 순간에 흥분되였던 심정을 전화로 전해왔다.

≪광명성1호≫가 육안으로 보이기전까지만 해도 하늘에는 움직이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움직이는 별같은 물체가 나타났다. 서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그들은 저도모르게 ≪야≫하고 감탄을 터쳤다. 분명 ≪광명성1호≫였다.

≪광명성1호≫는 바다가쪽의 설레산과 남산사이를 지나 동쪽으로 사라졌다. 목격자들은 ≪광명성1호≫가 지나가는 동안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한복만동무를 비롯한 목격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터놓았다. ≪온 세계가 부러워할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보았다. 21세기의 아침은 조선에서부터 밝아 지구를 비쳐줄것이라는 심장의 목소리를 웨치고 싶었다.≫



위성발사는 **김정일**총비서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

남조선각계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춘천시에 사는 과학자 김형국은 얼마전 이른 새벽 상공을 날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동료들에게 ≪저 하늘의 위성을 보니 동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이라면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과학분야에서 내노라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못낸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100프로 제힘으로 개발하여 쏘아올렸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북에서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는 민족의 존엄이 세계에 과시되고 겨레의 슬기와 힘이 만방에 떨쳐진 쾌거이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이다.

남조선의 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김봉운은 ≪이북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더 높이 선양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은 나라가 그것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속에서 단신으로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운반로케트와 위성을 자체의 지혜와 기술, 힘으로 개발하여 첫 발사를 성공시킨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일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주를 주체식으로 개척할 휘황한 청사진을 펼치시고 과학기술진과 우주정복을 위한 튼튼한 공업적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재야정치인 박영빈은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준민족적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위성발사 상황을 상세히 전하는 평양방송을 들으면서 ≪정말장하다. 그러면 그렇테지≫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가 할것없이 기뻐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인공위성발사소식에 접한 이남각계반향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남조선각계에서는 계속 커다란 반향이 일고있다.

남조선의 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김복운은 ≪이북에서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하여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더 높이 선양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크나큰 민족적자긍심을 안겨준 반면에 우리 민족을 얕보고 조선반도의 영구강점과 재침을 꾀하는 미국, 일본과 외세에 의존하면서 사대매국행위를 일삼는 이남의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경고를 내린 쾌거라고 해야 할것이다.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민족적쾌거를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며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충심으로부터 감사의 큰절을 드려야 한다.

서울에 사는 대학교수 리정수는 이북의 막강한 과학기술적잠재력과 자립경제의 위력앞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이 지금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주의강행군을 하는 엄혹한속에서도 다계단운반로케트도 인공위성도 모두 자체의 기술과 재료로제작하여 첫 발사에서 위성을 자기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니 자주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지 않을수 없다.

재야정치인 박영빈은 이북이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를 통해 주체과학과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했을뿐아니라 위대한 **김정일**령수의 추대경사를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세계를 경탄시킨 충격적인 사변이요, 온 겨레에게 큰 기쁨을 주고 민족적자긍심을 더욱 높여준 쾌거의 쾌거라 하겠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가 할것없이 기뻐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령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김일성**민족 만세



첫 인공위성발사 축하인쇄물배포

태양회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태양의 품으로 대하처럼 흐르는 남녘인민의 마음은 인공지구위성발사로 공화국의 존엄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 지금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지난 9월 서울, 광주, 대구 등지에는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축하하는 인쇄물, 삐라, 경축카드들이 수없이 뿌려졌는데 그중 태양회가 배포한 인쇄물에는 ≪민족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금 높이 떨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흠모의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재야인사 김수남은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이북이 인공지구위성을 자체로 생산하고 쏴올릴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품에 하루빨리 안기고싶은것이 나의 첫째가는 소원≫이라고 말하였다.

최근 대구의 한 학생은 두팔을 벌리고 태양이 빛나는 정일봉을 찾아가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아버지 **김정일**장군님품으로 가고싶어요≫라는 글을 썼다.

또한 서울 증산초등학교의 리영심학생은 ≪찾아갈래요≫라는 제목의 동요를 지어 발표하였다.

새가 되여 훨훨 가고싶어요
구름되여 씽씽 가고싶어요
세상에서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

≪**김정일**령도자님은 나의 희망의 태양이시다. 그분의 정치가 한없이그립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 희망의 태양으로 높이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목숨 다바쳐 싸워나가겠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한 지식청년이 이렇게 충성의 맹세를 다질 때 태백탄전의 한 로동자는 ≪7천만겨레가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통일만세를 부를 그날을 투쟁으로 앞당겨오자≫고 호소하였다.

인공지구위성 발사반향

각국

(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 사회계가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막강한 위력에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단마르크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조선이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성공한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조선의 경제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사변이다.

그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오늘 동방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가 과학적으로, 진리로 증명되고있다.

인디아(인도)공산당 제1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방글라데슈로동당대표단 단장은 조선이 100프로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은 ≪주체사상의 승리, 자력갱생정신의 승리≫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디아 국회의원 바쑤데브 아차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가져다준 또하나의 빛나는 열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개혁≫, ≪개방≫은 조선에서 통할수 없다.

오늘의 정세는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정치방식의 정당성을 립증하고있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는것은 세계진보적인류의 자랑이며 영광이고 긍지이다.

이번의 성과는 주체사상이 낸은 빛나는 결실이며 자력갱생의 길만이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조선인민을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시며 구세주이시다.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

총련일군을 살해, 지바현본부회관에 방화

15일 새벽, 괴한이 총련 지바현본부회관(지바조선회관)에 침입하여 수직을 하고있었던 총련 지바지부 라훈 부위원장을 무참히 살해하고 회관내에 불을 질러 물색하는 귀축같은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만행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걸고들어 련일 감행되고있는 광란적인 반총련, 반공화국 책동이 낳은 민족배타적인 범죄행위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반동적테로행위이다.

지금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동지이며 동포들의 충복으로 일하여온 라훈 부위원장의 생명을 빼앗고 총련본부회관에 불을 지른 류례없는 야수적만행에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터치고있으며 음흉한 기도가 깔린 이 엄중한 도전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산산이 짓부셔나갈 결의를 다지고있다.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의 산물

15일 새벽에 총련지바현본부회관에 침입한 괴한은 회관내를 물색하고 손금고를 앗아갔으며 1층과 2층에 휘발성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고 지어 수직을 하던 총련 지바현 지바지부 라훈 부위원장을 흉기로 마구 구타하고 칼질하며 목을 죄여 불태워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층 취사장옆에서 발견된 라훈부위원장의 유해는 거의 온몸이 불타 얼굴은 물론 성별조차 가려보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당국은 15일 오후 수사본부를 내오면서 이 사건을 강도살인 및 방화사건으로 판단하고 120명 수사원을 동원하여 수사를 벌리고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도나 방화 그자체에 목적을 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계기로 악질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이 장기화되고 우심해지는 속에서 감행된 반동테로행위이다.

우리 회관에 대한 일련의 폭행, 폭언 사건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 직후인 9월 1일부터 매일처럼 일어나고있다. 심할 때에는 하루에 5, 6번 파상적으로 감행되였으며 밤중에는 정체불명한 자로부터 협박전화가 그칠새없다. 지난 9월 22일에는 총련 지바현본부에 우익단체들이 몰려와 란동을 부렸으며 현하 여러곳에서 총련과 재일조선인 규제, 탄압을 부추기는 삐라를 뿌리기도 하였다.

지난 12일에 일본우익단체가 조선회관 입구를 봉쇄하여 ≪조선인은 죽어라≫, ≪불을 지르겠다≫ 등의 폭언을 퍼뜨리며 란동을 부린것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했음을 보여주고있다.

총련산하 각 단체와 학교, 상공회, 조은,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감행되고있을뿐아니라 치마저고리를 입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녀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있다.

끊임없는 박해의 요인은 일본정부당국이 계속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는데 있다. 불법행위가 공화국을 둘러싼 정치적사건을 계기로 조직적, 파상적, 계획적으로 감행되고있는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것이 아니며 배후관계의 조속한 규명이 요구되고있다.

일본사회전반에 조선인에 대한 민족배타주의가 만연되여 ≪간또대진재≫당시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환경속에서 끝내 우리 애국활동과 동포생활의 거점인 총련본부회관을 방화하고 우리 일군의 생명을 빼앗는 만행이 감행되였다.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엄중한 테로행위가 감행된 이런 때일수록 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총련애국사업의 정당성과 그 고귀한 업적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의 발전을 내다보며 단결을 굳혀나가고있다.

우리는 일본 경찰, 소방을 비롯한 수사당국이 공정하고 정당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힐것과 범인의 체포와 엄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반총련, 반공화국 소동의 산물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반동테로행위라는 인식을 똑똑히 가지고 경각성있게 사태에 대처하여 동포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총련중앙 제1부의장, 유가족들과 일군들을 위문, 격려

총련중앙 서만술제1부의장은 16일, 총련 지바현본부회관 등을 찾아 피해자유가족들과 현지 일군들을 위문, 격려하였다.

제1부의장은 이날 오후 먼저 총련 지바현본부를 찾아 불탄 회관건물내부를 돌아보았으며 총련 지바현본부관하 일군들을 격려하였다.

제1부의장은 다음으로 총련 지바지부 라훈 부위원장의 유해가 안치된 재장에서 어머니인 량월선동포와 유가족들을 만났다.

제1부의장은 라훈부위원장은 20년이상 조직과 동포들을 위해 애국열성을 다 바친 우리의 귀중한 동지이며 동포들의 친근한 벗이였다고 하면서 반동들이 이런 유능한 일군을 무참하게 학살한데 대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서만술제1부의장은 유가족들을 위문, 격려하고 우리는 라훈 부위원장의 목숨을 야만하게 앗아간 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여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치적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테로행위

총련 지바현본부가 기자회견

총련 지바현본부는 16일, 지바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테로행위라고 규탄하는 총련본부 서창무위원장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번 사건이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발사성공을 그 무슨 ≪탄도미싸일발사≫라는 생억지를 쓰면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과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조속히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의 진상과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일조친선 지바현의 회 요고보리 쇼이찌사무국장은 현내의 일본인변호사와 지바현의회의원, 각계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현과 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려나갈것을 밝혔다.

≪조선신보 98/10/19≫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우익반동들의 위협행위

조선회관에 23차례 불법행위 각지 총련조직과 학생들에 대한 용서 못할 폭언, 폭행도
- 일본당국에 엄격한 단속을 요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기화로 하여 9월초부터 일본 각지에서 총련조직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책동과 우리 학교,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가 날로 악랄화되여가고있다.

각지 총련조직과 동포들은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일상생활을 심히 위협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분격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금까지 조선회관에 대한 일본우익들의 위력방해행동등의 협박행위는 연 23건에 달하였다. 어떤 날에는 5, 6차례에 걸쳐 파상적으로 감행되기도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일본우익깡패들이 가두선전차 2대를 몰고와 조선회관 현관의 부지를 침범하여 일군들과 방문객들의 회관출입을 가로막고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면서 온갖 란동을 부리였다.

특히 30여명이나 되는 우익깡패들은 대형확성기의 음량을 최대한으로 높여 ≪조선인은 나가라≫, ≪조선인은 죽어라≫ 등의 폭언을 터뜨리는가 하면 회관의 문을 발로 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장에서 ≪경비태세≫를 갖추고있던 일본경찰이 눈앞에서 우익반동들의 란동을 보고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고있었던 사실이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각지의 총련산하 단체와 학교, 상공회와 조은, 개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지난 9월 4일 우익깡패들이 총련 가나가와현본부가 주최한 공화국창건 50돐 축하연이 진행된 호텔릿치에 란입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학교의 급수통에 청산카리를 넣었다.≫, ≪조선학교의 수도물에 독약을 쳤다.≫ 등의 협박전화도 있었다.

한편 우리 학교 학생에 대한 폭언, 협박도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아이찌에서는 녀학생(중2)이 전차칸에서 30살정도의 가위를 가진 일본남성한테 ≪머리칼을 자른다.≫라고 위협당했으며 교또에서는 녀학생(중3)이 50살정도의 남성으로부터 돌연히 팔을 잡혀 ≪너도 조선인인가.≫라고 공갈당하였다.

고베의 녀학생(고3)은 등교시에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아도 안다.≫, ≪우익이 학교를 부순다.≫ 등의 폭언을 당했으며 히로시마초중고급학교는 40살의 남자라고 자칭하는자로부터 전화로 ≪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인을 죽인다.≫고 협박당하였다.

도꾜의 녀학생(초4)은 전차칸에서 책가방을 칼질당했으며 아이찌에서는 30살정도의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던 녀학생(고1)을 다리로 2번 찼다고 한다.

이러한 실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우익반동들과 일부 분별없는 일본인들의 반총련소동, 협박행위는 간또지방의 현본부들과 오사까, 아이찌, 효고, 히로시마, 후꾸오까 본부들을 비롯하여 각지 총련조직과 학교, 상공회와 신용조합, 개인에 대하여서도 감행되고있다.

우익깡패들은 야마구찌현하 어느 상공인집에까지 가두선전차를 몰고와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로부터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는것은 일본당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속 ≪미싸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려고 하지 않고 반공화국적대시감정을 부추기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각급 조직과 학교들에서는 지금 일본당국에 대하여 엄중한 불법행위와 협박 및 폭행을 감행한 우익깡패들과 반동을 엄격히 단속처벌할것을 요구하여 항의요청투쟁을 벌리고있다.

일본당국은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해야 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 행위의 방지와 그 배후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신보 98/10/19≫

일본의 반공화국정책 규탄 청년학생집회

(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당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15일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일환 등 청년동맹일군들과 대학 총장, 학장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박경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세계가 공인한후에도 일본당국이 ≪탄도미싸일발사≫라고 강짜로 우기면서 ≪동북아세아의 평화와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려해야 할 사태≫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고창하였으며 일본사회에 ≪미싸일공포증≫을 류포시킨데 대하여서와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들과 우리의 벗들에 대한 각종 협박과 적대행위를 비롯한 테로광풍으로 그들의 생명재산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더우기 엄중하게도 일본의 군부와 정부당국자들속에서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타격≫까지 운운하며 우익반동단체들이 ≪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요망서≫를 들고 다니면서 반공화국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광증을 부리는것은 군사대국화를 다그쳐 해외침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구실을 얻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해외팽창의 변함없는 야심을 품고있는 일본당국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독자적인 군사위성을 발사해야한다고 떠들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위한 국내법을 조작해내고 미국과 한짝이 되여 ≪전역미싸일방위≫체계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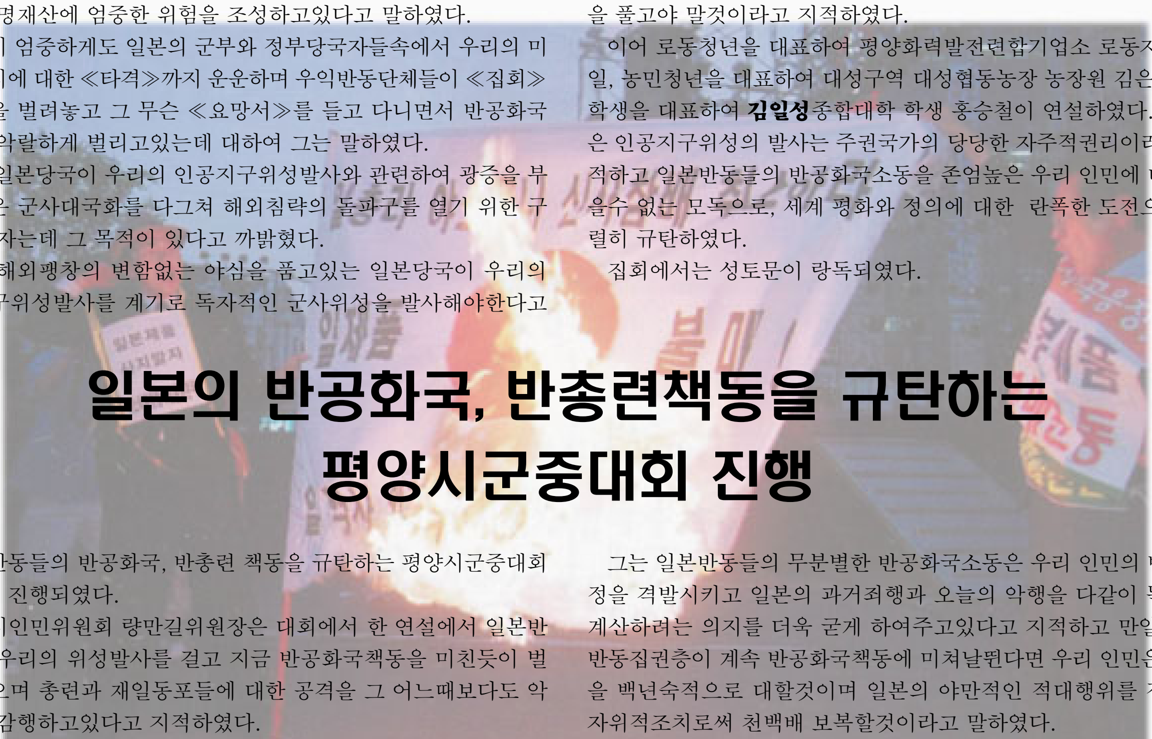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군사위성발사로 대응해 나오려는 일본당국자들의 책동을 전체 조선청년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연설자는 일본당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공화국소동에서 찾으며 우리의 위성발사를 군국주의부활의 기회로 삼아 재침의 창끝을 우리 나라에로 돌리려는 저들의 책동이 어떤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500만의 청년학생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여 천백배로 복수하고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로동청년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최응일, 농민청년을 대표하여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 농장원 김은옥, 대학생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홍승철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라고 지적하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소동을 존엄높은 우리 인민에 대한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세계 평화와 정의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준렬히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성토문이 랑독되였다.



일본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29일 진행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량만길위원장은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 지금 반공화국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공격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금 일본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여야당, 군부, 언론매체, 지방자치체에 이르는 모든 단위의 정책을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으로 일색화하고있으며 국민 여론과 감정이 우리에 대한 민족배타적인 불신임으로 가득차게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이번 책동은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조치와 사회적배경을 마련하려고 목적의식적으로 감행하고있는데 또한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위성이 발사되자 일본당국자들은 때를 만난것처럼 ≪미싸일악몽≫에 사로잡혀 우리 공화국을 ≪가상적국≫이 아니라 직접 ≪군사적위협≫을 주는 ≪적대국≫이라는 국민 여론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장확산시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발시키고 일본의 과거죄행과 오늘의 악행을 다같이 똑똑히 계산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일본반동집권층이 계속 반공화국책동에 미쳐날뛴다면 우리 인민은 일본을 백년숙적으로 대할것이며 일본의 야만적인 적대행위를 강력한 자위적조치로써 천백배 보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위정자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트집잡아 일본과 한짝이 되여 가소로운 꿍꿍이를 할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남조선괴뢰들도 미일상전에 빌붙어 경거망동한다면 차례질것이란 민족의 규탄과 저들의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 각계층 대표들은 연설에서 일본반동들이 계속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놈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징벌을 안기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일조선인탄압중지와 사죄요구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는 10월 31일부 성명에서 재일조선인들에게 감행하는 일본우익깡패들의 악행은 용서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일본당국자는 재일조선인들과 총련단체들에 대한 모든 공권력과 극우세력들의 탄압과 박해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며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둘째, 일본당국자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조선인 명예에 대한 피해보상에 성실한 책임을 다하라.

셋째, 일본당국자는 과거의 력사앞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라.

한편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공동의장 리준식이 같은날 총련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규탄집회(각국)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과 남조선, 일본 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폭로규탄하여 가이아나의 홰불태권도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와 파텐서 **김정일**동지청년운동사상연구소조에서 집회들이, 아메리인디안행동운동 **김정일**주의연구소조에서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집회들과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최근에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침을 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린데 대해서와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적책동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 반북대결 정책에 언급하고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집회들에서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 동구라파쎈터 위원장인 울라지미르 똘스찌꼬브는 최근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일본당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우익반동세력들이 ≪미싸일발사≫로 외곡하면서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 동구라파쎈터는 일본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의 이러한 행위를 조선반도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는 도발책동으로 규탄하면서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일본당국과 그의 조종을 받는 우익반동세력들의 반총련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바베이도즈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 당국과 우익반동들의 반총련깜빠니야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유린행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 엄중한 적대행위로 된다.

우리는 일본이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악화시키고 만회할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간주한다.

일본당국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일본당국의 부당한 반총련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선인민과 재일조선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구실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는 일본 당국과 우익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을 자주국가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이며 위성발사는 특정한 나라만이 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일본당국은 부당한 반총련깜빠니야를 걷어치우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민주주의적권리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과 관련하여 일본총리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항의편지는 일본총리가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당장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질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자존심이 강하고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조선반도에서 살고있건 일본에서 살고있건 관계없이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당국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 정계, 사회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일본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공보책임자 아브둘 라흐만 마타르는 담화에서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란폭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일본당국은 부당한 구실로 감행되는 총련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총련탄압행위는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비롯하여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일환이다.

가이아나로동동맹위원장 사무엘 워커는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당국과 우익반동들에 의하여 부당한 탄압과 생명재산에 대한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고집하며 그의 해외공민조직과 동포들을 무모하게 탄압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화될수 없는 주권침해이며 인권유린행위이다.

뻬루공산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일본 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일본의 언론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감과 조선사람들에 대한 배타적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장시키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땅에서 살게 된 력사적배경을 놓고 보나 공인되고있는 국제법적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은 응당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세계가 환영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생트집잡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대한 비렬한 탄압을 감행하고있는것은 저들의 후안무치성, 비도덕성을 스스로 폭로할뿐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총련일군들에 대한 탄압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에서 감행한 무차별적인 강탈과 ≪종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한 응당한 정부적 공식사죄와 보상을 하루빨리 단행하여야 한다.

캄보쟈 물리나까 및 자유를 위한 크메르투사당위원장 푸릅 니엑리엑은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인민을 비롯한 전세계인민들은 일본의 온당치 못한 반인륜적처사를 주시하고있다.

일본은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계기로 망신당한 분풀이를 애매한 재일조선인들에게 할것이 아니라 조선의 과학기술성과를 인정하고 허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달보고 주먹질하는 시비군들

로동신문 론평

(평양 9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한 남조선괴뢰들의 경거망동이 계속되고있다.

며칠전 남조선집권자는 전 미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그 무슨 ≪도발≫이니, ≪목적≫이니 하면서 상전에게 ≪긴밀한 대북공조≫를 구걸하였다.

11일부 ≪로동신문≫은 이 사실을 론평하면서 달보고 주먹질하는 격의 시비질이라고 지적하였다.

성공적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단군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부강조국의 래일을 내다볼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사변이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동족의 일이 잘되는데 대해 좋아하고 축하하지는 못할망정 무슨 죽을 일이나 만난듯이 험담질을 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의 발로이며 심술이 뒤틀린 자들의 시기질투이다.

괴뢰들은 북이 ≪탄도미싸일을 발사≫했다는 미일상전의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에 곡조를 맞춤으로써 제 주견이 없이 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외우는 식민지주구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더욱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상전의 힘을 빌어 우리를 모해압살하려는 범죄적책동을 계속한다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것이다.

일본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인공위성발사관련 로동신문 론평

(평양 9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부 ≪로동신문≫은 ≪일본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개일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최근 일본당국은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히스테리적행동을 하고있다.

우리 나라가 100프로 자체의 지혜와 기술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탄과 환영을 표시하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주장해나섰던 일부 서방나라들도 이제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인정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만이 유독 혼자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끈질기게 고집하면서 반공화국소동을 계속 벌리고있다. 일본당국은 조일국교정상화교섭과 우리 나라에 대한 식량지원의 중단, 고려항공기의 일본운행중지 등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문제를 당치않게 유엔안보리사회에까지 끌고가 반공화국≪국제적압력≫을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설사 우리의 이번 발사가 위성발사라고 해도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을것이라고 망발하고있다. 지어 일본 군부와 정부의 호전적계층들은 우리의 미싸일기지를 ≪타격≫해야 한다는 엄중한 폭언까지 탕탕 하고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터무니없이 외곡날조하여 우리를 걸고들며 리성을 잃고 반공화국깜빠니야에 환장이 되여 돌아치는데 대하여 추호도 용허묵과할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을 우리 공화국과 조선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발과 도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우주공간은 인류공동의 리용대상이며 궤도상에 위성을 운반하여 과학기술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제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위성을 발사한것은 철두철미 자주권의 행사이며 평화적인 과학기술적발전을 위한 것이다.

일본도 수십차례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궤도상에 위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한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악의에 차서 중상비방하며 경거망동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지은 죄가 있기때문이며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근 반세기동안이나 류례없는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웠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상할 대신 오히려 과거범죄를 감싸고 유야무야해버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인민을 반일감정으로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죄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실현하고야말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이러한 의지를 극도로 무서워하면서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다. 그러던 나머지 평화적목적을 위한 우리의 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우겨대면서 반공화국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이다.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 실현을 위하여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맹렬하게 추진시켜왔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여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해외침략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구실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대응조치≫와 ≪국제적압력≫ 그리고 ≪타격≫으로 우리 인민을 건드려보려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버리면서까지 절대로 조일국교정상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것이다. 일본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수 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부당한 국제적압력속에서 살아오고있다. 반공화국국제적압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어오르고있다.

일본이 ≪국제적압력≫을 조성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운것도 없고 놀랄것도 없다. ≪국제적압력≫조성놀음은 오히려 일본당국자들을 조소의 대상으로 만들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타격≫을 운운하는 일본 군부와 정부 당국자들을 통하여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날뛰는자들의 파멸적운명을 보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일제에 대한 원한이 차고넘치고있다. 일제로부터 받은 민족적 멸시와 수모, 불행과 고통, 재난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는 이미 일본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광증에 대처하여 자기의 립장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자기 동료들까지 민망스럽게 하는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는것이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고 빠질 구멍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자들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계속 무모하게 날뛴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때늦은 후회는 아무리 하여도 필요없는것이다.

공정성이 없는 처사

로동신문 론평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22일부 ≪로동신문≫은 ≪공정성이 없는 처사≫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유엔안보리사회 비공식협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걸고든 일본의 립장을 담은 ≪기자공보문≫이라는것을 안보리사회 의장이 발표하였다 한다.

그에 의하면 유엔안보리사회가 우리의 로케트에 의한 ≪물체발사≫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것이 지역나라들사이의 ≪신뢰구축에 역행≫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우리 공화국이 다시는 사전통보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와관련한 지역나라들의 그 무슨 ≪자제력≫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상식밖의 놀라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이미 여러차례 명백히 천명한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자는데그 목적이 있다.

우주는 인류의 공유대상이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적권리이다.

오늘 지구궤도상에 여러 나라가 쏴올린 수백수천개의 위성이 자유롭게 돌고있는것도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가 가타부타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더우기 우주정복에 대한 인류의 희망과 념원이 현실로 전변될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주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각국 정부와 인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자 세계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기뻐하며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는 까닭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런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일본의 꼬드김을 받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우려≫요, ≪유감≫이요 하는것자체가 벌써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이며 자기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이다.

지난 시기 유엔안보리사회는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위성을 쏴올렸지만 그것을 문제시한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것만큼 유엔안보리사회가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해야 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

지난 시기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각종 목적의 인공위성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쏴올릴 때 과연 그들이 우리에게 단 한번이라도 사전통보해준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이런 나라들이 유엔안보리사회에 모여앉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시비한것자체가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떤 나라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어떤 나라만은 반드시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는 식의 론리는 통하지 않는다.

그 취지가 무엇이고 경위가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이번 유엔안보리사회 비공식협상회의에서 있은 ≪기자공보문≫발표놀음은 안보리사회가 이미 공정성을 잃고 2중기준에 롱락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경종을 울리고 문책을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죄많은 과거를 인정도 보상도 하지 않은채 침략과 전쟁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이다.

지금 일본정부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가지고 유별나게떠들면서 악랄하게 비방중상해나서고있는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으로서의 자기 죄행을 감싸며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대국화의 명분과 구실을 얻어보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안보리사회가 취한 립장과 처사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세력이 훼방을 논다 하여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것이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유엔안보리사회는 현실을 랭정하게 판단하고 문제처리에서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규탄

로동신문 론평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5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이 우리를 계속 걸고들며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얼마전 미국무성대변인은 우리의 ≪지하핵시설≫에 대한 확인이니, 소형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다계단미싸일에 의한 미국본토 ≪타격위협≫이니 하면서 우리를 걸고들며 부산을 피웠다. 미국방장관 코헨도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들의 주장인즉 우리가 ≪지하핵시설≫을 건설하고 인공지구위성발사로 ≪더 먼거리에 있는 지구상의 목표들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시위한것만큼 그것이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것이다.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주장이라하지 않을수 없다.

론평은 녕변지구에 있는 지하구조물이 민수용구조물이며 우리가 발사한것은 ≪탄도미싸일≫이 아니라 평화적목적의 인공지구위성이라는데 대해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내돌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미국의 론리대로 한다면 수많은 핵시설을 가지고 핵물질을 대량 생산할뿐아니라 막대한 량의 핵탄두와 운반로케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탐 및 군사위성의 발사를 통하여 우주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는 미국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라고 락인해야 옳겠는가.

미국이 우리에 대하여 당치도 않은 그 무슨 ≪위협≫설을 들고 나오는데는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저들의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 음흉한 기도가깔려있다.

우리의 ≪위협≫설을 떠들어대는 미국의 행위는 완전히 언어도단이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군사적목적에 쓰이는가 쓰이지 않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은 공연히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설을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태를 랭철하게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보복할것이다

오부찌총리유엔연설에 대하여 / 로동신문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6일부 ≪로동신문≫은 ≪보복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유엔무대에까지 들고가서 추태를 부리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총회 제53차회의에 참가한 일본총리 오부찌가 일반연설을 하면서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고약하게 걸고드는 불손한 행동을 하였다.

그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면서 ≪대량파괴무기의 불확산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헐뜯었다.

그는 또한 그것이 가령 위성발사가 목적이였다고 해도 ≪일본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당국자들은 ≪미싸일악몽≫에 사로잡혀 때와 장소도 가리지 못하고 얼빠진 행동을 망탕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자가당착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지만 일본은 수십번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현재 일본의 인공위성들이 지구주위를 돌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일본당국자들의 억지주장대로 하면 일본의 수십번의 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걸고드는것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만들어 뒤집어쓰는 바보짓이다.

사실 일본당국자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들 체면이 없다.

일본은 자기 령토를 미국의 군사기지, 전초기지로 내맡기고 거기에수많은 핵미싸일을 전개하게 하고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이런 주제에 그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그 무슨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걸고드는것 자체가 일본의 철면피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문제를 놓고 일본과 상반되는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인정하고 그에 지지와 환영을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과학기술발전을 자랑하는 일본의 당국자들만이 그것이 위성인지 미싸일인지조차 가려보지 못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줴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일본은 세계면전에서 개코망신을 당하고있다.

일본은 이에서 마땅히 창피와 수치를 느끼고 교훈을 찾아야 하며 더는입질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더 큰 망신과 창피를 당하지 않는 상책으로 된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문제를 리성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계속 경망스럽게 행동하고있다.

일본의 최고위당국자가 신성한 유엔무대에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또다시 걸고늘어진것은 분별을 잃은 망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일본반동지배층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로서 우리 인민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력대적으로 우리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헐뜯으며비렬한 행위를 일삼아왔다. 그것이 이제는 도수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고있다. 그들은 감히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조일적대관계를 전쟁국면에로 이끌어가려 하고있다.

인공지구위성을 개발, 발사하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세계과학기술발전과 인류의 문명발전에도 부합된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주개발을 진행하고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시야비야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어째서 우리의 우주개발을 ≪위협≫으로 걸고들며 분주탕을 피우는가. 일본의 행위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존중,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대한 공공연한 유린이다. 일본당국자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그 무슨 ≪도전≫, ≪위협≫으로 망발하는것은 날강도적론리이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그 리면에는 우리의 이른바 ≪미싸일발사≫를 구실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로골적으로 다그치고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교활한 군국주의적속심이 놓여있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꿰뚫어보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무모한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발시키고 일본의 과거죄행을 계산하려는 의지를 더욱 억세게 하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민족의 피맺힌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일본반동집권계층들이 계속 반공화국광증에 미쳐날뛴다면 일본을 백년숙적으로 대하며 강경히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보복할것이다. 일본지배층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위성개발, 발사에 대한 자주권행사

로동신문 론평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미일남조선당국자들이 최근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한 ≪회담≫이라는데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그들이 여기에서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공동성명≫이란것을 발표한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발사한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고있다는것이 현실적으로 확증되였다. 세계가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위성을 굳이 ≪미싸일≫로 단정하며 그 무슨 ≪위협≫이라고 생억지를 쓰는것은 그들자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매우 유치한 행위이다.

최근 미일호전계층들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 ≪전역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공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순세력들의 압력때문에 자기의 자주권과 리익에 부합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할 때 인공위성 개발, 발사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할것이다.

≪탄도미싸일발사≫설의 진의도

로동신문 론평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28일부 ≪로동신문≫은 ≪(탄도미싸일발사)설의 진의도≫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탄도미싸일요격≫을 구실로 우주의 군사화를 다그치기 위해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10월 13일부 ≪아사히신붕≫에 의하면 지금 일본방위청은 ≪전역미싸일방위≫에서 기본핵으로 되고있는 ≪경량대기권외투사체≫(엘이에이피)의 기술연구를 적극 다그치려는 야심밑에 국회에 래년도분예산을 요구하려하고있다. ≪경량대기권외투사체≫는 대기권외요격용인3계단미싸일 ≪에스엠-3≫의 맨 앞부분(3계단)이다.

≪에스엠-3≫은 지구로부터 약 100키로메터이상 되는 고도의 대기권밖에서 대방의 탄도미싸일이 내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고 그에 접근하여 직접 충돌함으로써 탄두를 파괴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이연구에만도 앞으로 5년동안에 200억내지300억엔의 자금이 든다고한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한사코 우겨댄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방위청이 말하는 요격대상이란 바로 우리의 ≪탄도미싸일≫인것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자들은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몰아대기 위해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렸다.

그 진의도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군비증강과 우주의 군사화를 합법화하여 군사대국으로서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사실이 그러하다. 우리의 ≪탄도미싸일발사≫설을 앞장에서 들고다니던 고무라외상과 누까가방위청장관은 지난 9월 20일에 미국의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코헨국방장관을 만나 내외인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전역미싸일방위≫에 대한 공동기술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원래 일본의 우주의 군사화책동은 어제오늘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여왔다.

1954년에 미극동군사령부의 승인밑에 시작된 일본의 우주개발계획은 ≪우주개발사업단≫, ≪우주과학연구소≫, ≪항공기술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200개의 회사들이 망라되여 실현되여왔다. 1970년대에는 첫 위성을 발사하였다. 1990년대에는 위성과 그 운반수단들을 자체로 생산, 개발하기 위한 ≪국산화≫방향으로 발전시켜왔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주에 쏴올린 위성들은 수십개나 된다.

일본은 이러한 위성들을 군사적목적에 많이 리용하여왔다. 이에 대해 방위청은 ≪민간급에서의 리용이 일반화되였기때문에 자위대가 리용해도 국회결의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1969년에 채택된 국회결의에는 ≪대기권의 주요부분을 넘어서는 우주에 쏴올리는 물체와 그 발사용로케트의 개발 및 리용은 평화적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을 ≪평화애호적인 국가≫로 치장하기 위한 빛갈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어쨌든 일본은 지난 시기에는 우주의 군사화를 로골적으로 다그치지는 못하였다.

이번에 일본지배층은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한사코 ≪탄도미싸일발사≫로 묘사함으로써 우주의 군사화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지난날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나라이다. 그러나 죄악으로 얼룩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똑똑한 사죄와 보상도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일본의 우주의 군사화책동이 앞으로 어떤 참혹한 후과를 가져오겠는가하는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과녁은 우리 나라이다. 이번에 우리의 ≪미싸일기지 타격≫을 운운한것자체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여주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닭알로 바위를 깨겠다는것과 같이 어리석은것이다.

일본반동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포기를 요구

로동신문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31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조선압살책동을 포기하며 경제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인필명의 글은 조미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압살야망을 한시도 버린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공갈과 위협으로 한순간도 마음놓고 살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오늘 미국이 조선의 그 무슨 ≪미싸일문제≫를 걸고들면서 조미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은 조선의 미싸일이아니라 미국의 새 조선전쟁도발책동이며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전역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싸일의 개발, 생산, 배비는 철저히 우리의 자주적권리에 속한 문제이다. 더우기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을 강화하는 현실적조건에서 우리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조미관계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놀음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도 미국을 선의와 아량을 가지고 대할것이다.



미일≪한≫ ≪공동보조≫비난

민주조선 론평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4일부 ≪민주조선≫은 미, 일, 남조선 외교당국자들이 ≪회담≫을 벌려놓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다시금 몰아붙이면서 거기에 대처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폭로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그 누구에게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그토록 배아파하며 안달복달하는데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그것은 이를 통하여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미일사이의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완비하려는 검은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단언하건대 우리는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든 우리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인공지구위성을 또 쏴올릴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못할 우리의 자주권이다.

일본의 정보위성보유 비난

≪민주조선≫ 론평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민주조선≫은 ≪음흉한 목적을 노린 위성보유책동≫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다음과 같다.

속담에 미친놈 벌거벗고 춤춘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바로 그렇게 놀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일본정부는 그 무슨 각료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있지도 않은 ≪미싸일발사≫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방위와 방지에 관한 정보수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위성을 보유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앞으로 2002년까지 4개의 정보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배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을 ≪경제대국≫이라고 곧잘 외워왔다.

그러한 일본이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놓고 그것이 위성인지, 미싸일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놀고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하는것은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위성과 미싸일을 가려볼 초보적인 정보수단조차 가지지 못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나 같다.

자기의 허물을 제스스로 드러내놓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미친자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문제는 위성과 미싸일을 가려볼 초보적인 정보수단조차 가지고있지 못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한사코 ≪미싸일발사≫로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목적이 내포되여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일본반동들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그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고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지배권쟁탈에 나서려하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일본반동들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지출하여 ≪자위대≫의 무장장비수준과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해외침략을위한 법제정비와 군사훈련을 다그치고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미국과의 군사적결탁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이개발하려고 하는 ≪전역미싸일방위체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리하여 오늘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 실현책동은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하여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있다. 최근 로씨야국방상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계획이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며 평화와 안전 균형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공동립장을 취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필요로 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고있는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합리화하고 나아가서 그를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망상은 실현될수 없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계속 우리를 걸고들면서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 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그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안기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대세를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한일공동대응방안≫협의는 공화국압살기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상전의 힘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모해압살하려는 남조선 현 집권세력의 범죄적기도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지난 22일 남조선≪국방부≫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그무슨 ≪북의 미싸일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일본방위청 관리들과 마주앉아 ≪한일량국의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한것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미싸일발사≫라고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표방해나서는 일본반동들을 서울에 끌어들여다 놓고 동족을 모해해보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비굴한 추태야말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행위이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 이것은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북과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무궁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게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벗들도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들도 동족의 이 경이적사변에 대해 기뻐하고 자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 현 집권세력은 처음부터 위성발사를 두고 불안초조감을 감추지 못해하면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다, ≪한미련합대응태세를 확립≫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일으키다 못해 외세를 끌어들여 ≪공동대응방안≫까지 토의하고있으니 이들의 행위를 두고 민족반역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외세에게는 덮어놓고 추종하고 동족을 모함하려는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의 고질적악습이다.

제반사태는 ≪국민의 정부≫로 자처하는 현 집권세력도 선행≪정권≫과 다를바없이 동족대결에로 줄달음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동족대결은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아부추종하며 동족모해전에 나설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손잡고 외세를 배격하는 길로 나가야한다.

≪로케트추진식물체≫발사는 어정쩡한 소리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이 25일 유엔총회연설에서 또다시 우리를 걸고들었다.

그는 우리의 군사기술발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느니, 국제공동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그가 말하는 ≪우려≫라는것이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그를 통해 보여준 첨단과학기술을 념두에 두고있다는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인공지구위성발사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말하지 못하고 ≪로케트추진식물체≫의 발사라는 어정쩡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의 ≪대량파괴무기개발능력≫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억지론리가 국제사회에 통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정책과 거기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남조선과 일본당국의 책동으로 하여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에 수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기지화하고있으며 막대한 전쟁무기와 장비들을 투입하여 날마다 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

지난 8월 수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전역에서 벌린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만 놓고 보아도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아볼수 있다.

그럼에도 홍순영이 유엔총회에서 흑백을 전도하여 그 무슨 ≪위협≫설을 운운한것은 북남대결을 국제화하여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처사일뿐아니라 공정한 세계여론을 오도하려는 파렴치한 우롱행위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다.



일본방위청≪미싸일발사최종보고≫ 제출의 범죄적시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방위청은 최근 ≪북조선의 미싸일발사와 관련한 최종보고≫를 자민당의 국방관계합동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그것은 ≪사실상 ≪대포동1호≫로 불리우는 탄도미싸일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하여 한사코 부정하며 그것을 미싸일발사로 묘사하는 저들의 시종일관한 억지주장을 최종정립한것으로서 우리의 격분을 더욱 야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다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세계에 확고히 공인되여있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단한번에 궤도에 진입시킨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는 높은 경지에 이른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의 일대 과시로서 세계인공지구위성발전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온 세계가 이에 대해 찬탄을 금치못하고있는 때에 유독 일본만은 처음부터 그것을 부정하며 북조선의 ≪탄도미싸일≫이 일본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하였다느니, 일본은 그에 ≪보복≫할것이라느니 뭐니하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렸다.

일본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 부정하고 그것을 ≪탄도미싸일≫이라고 생떼를 쓰는것은 저들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비렬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미국과의 ≪전역미싸일방위≫구상의 실현을 다그치고있으며 미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협력≫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오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집단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있다.

이번에 일본방위청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최종정립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싸일대국화, 핵무장화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치려는 범죄적시도의 발로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으로서 우리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한 길로 나선다면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파멸뿐일것이다.

일본의 ≪미싸일위협≫소동규탄

조선중앙통신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때로부터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31일에 있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벗들은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적대세력들은 비명소리를 울리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이른바 ≪북조선위협≫론을 들고나왔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당장 큰 변이라도 난듯이 공포를 조성하고 ≪미싸일위협≫소동을 벌리면서 말세기적인 광기를 부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떠들고있는 ≪북조선위협≫론과 그를 정당화하는 근거처럼 내돌리고있는 ≪미싸일발사≫, ≪미싸일재발사≫, ≪일본의 안전에대한 심각한 위협≫따위의 주장은 완전한 궤변에 불과하다.

최근년간의 사태발전과정은 이를 립증하고있다.

일본반동들과 어용언론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빠르게 ≪미싸일발사≫라고 생억지를 쓰며 일본전역에 ≪미싸일공포증≫을 야기시켰다.

여기에 정부의 공식인물들 자체가 주역이 되여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9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의 공식보도로 위성발사소식이전해지고 그후 일본에 허위정보를 제공했던 미국까지 우리의 위성발사를 시인한 시점에서도 일본반동들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되였다. 일본의 어떤 특정한 사전에 인공위성과 미싸일이 동의어로 정의되고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주장하는 궤변은 해를 넘겨 오늘까지도 계속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위성발사 1돐이 다가오면서 일본반동들은 이번에는 ≪미싸일재발사≫라는 대동소이한 궤변을 들고나오는 한편 ≪북조선에 대해서는 미싸일발사도 위성발사도 다 허용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주장까지 하기 시작하였다.

주권국가의 공인된 자주적권리에 대한 이러한 란폭한 태도와 립장은 일본반동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미싸일발사시험에 대하여서는 말한마디 못하는 일본이 우리의 미싸일에 대해서만은 왁작 떠들어대고 우주의 평화적연구와 관련한 위성발사의 평등한 권리마저 우리에게 만은 없다고 하는 궤변적론리는 일본반동들 고유의 량면적인 근성인



비굴성과오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난해 인공위성발사에 대하여 더는 부인할수 없는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저들의 종전의 주장과 ≪미싸일소동≫이 궤변과 그 황당한 론리에 기초하였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가소로운 정치만화이기도 하다.

일본반동들이 시종일관 떠들고있는 ≪북조선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가설도 그 시초부터 철면피한 궤변이다.

조일관계의 100년력사는 두 나라사이에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이미 명백히 증명하였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정부성명이 밝힌바와 같이 일본은 조선인민의 백년숙적으로서 아무런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은채 호시탐탐 재침의기회를 노리며 군사대국화정책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나라이다.

일제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과 패망후 조선전쟁에 가담하여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 반세기이상 계속되고있는 우리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봉쇄≫와 ≪제재≫, ≪압력≫, ≪위협≫ 책동, 이 반성하지 않은 력사는 누가 누구에 대한 위협으로되는가를 웅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황당무계한 궤변적론리를 정설처럼내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며 군국주의, 국수주의적 해외팽창정책을 본격으로 추진시키는 모험적인 길에광신적으로 뛰여들고있다.

우리의 인공위성발사후 일본에서 ≪미싸일발사≫선전깜빠니야와 함께 일사천리로 강행되고있는 나라의 군국화, 파쑈화를 위한 사상정신적 및 제도적 정비작업이 그것을 립증하고있다.

전례없이 강화된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시책동,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안책정의 전격처리, ≪전역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일미공동기술연구합의, ≪자위대≫무력의 교전권과 참전권 확보, 미국, 남조선과의 쌍무적 및 다무적 군사관계와 합동전쟁연습의 확대강화 등이 ≪북조선위협≫의 구실밑에 일본의 전후사상 류례없는 적대적이며 호전적인 양상을 띠고 현실정치의 핵심적요소로 떠올랐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우리의 위성발사를 계기로 전례없는 광기를 부리고있는 진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우리 공화국을 ≪핵위협국가≫로 몰아붙이자는데 있다.

이미 미국과 함께 우리의 ≪핵문제≫를 들고 소동을 피운바 있는 일본은 핵무기운반수단인 ≪미싸일발사≫소동을 통하여 ≪핵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켜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이 미국소식통을 운운하며 ≪북조선이 핵개발을 재개하는 경우 4개월만에 핵무기를 실전배비할수 있다≫느니 ≪이 기간내에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조선 이 명실공히 핵보유국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미국정부는 보고있다≫느니 하는 여론을 퍼뜨린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미싸일발사≫라는 궤변을 들고 광기를 부리는 목적의 다른 하나는 ≪북조선의 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정당화하자는데 있다.

조선인민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패망후 반세기가 넘도록 사죄와 보상은 커녕 시종일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고수하여온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비난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 13일 유엔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소위원회 제51차 회의에서 일본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재일조선인녀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인권유린행위가 감행되고있는 사실이 폭로되고 이것이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일본의 력사와 정치환경의 직접적 반영이라고 단죄된 사실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때문에 일본은 ≪미싸일발사위협≫이라는 구실과 소동으로 저들의 반인륜적범죄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범죄적성격을 가리울뿐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미싸일발사≫라는 궤변을 들고 광기를 부리는 또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저들의 군사대국화, 핵대국화 야망을 한시바삐실현하며 미국과 남조선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를 철저히 고립압살하자는데 있다.

최근 일본의 우익보수지인 ≪산께이신붕≫은 ≪장래의 안정보장체제를 갖추어가자면 (일미방위협력지침)으로 그렇게 한것처럼 북조선을 방편으로 삼아 (기초체력)을 다질수밖에 현실적인 방도가 없는것으로 된다≪고 썼는데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진짜 속심을 그대로 털어놓은것이다.

여기서 ≪기초체력≫을 다진다는것은 곧 일본이 주변대국들과 대응할수 있는 군사대국화, 핵대국화정책을 추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있는것만 보아도 일본이 저들의 군사대국화, 핵대국화 정책실현을 위해 얼마나 비렬하고 파렴치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여기에서 스쳐지나지 말아야 할것은 지금 일본호전광들이 유럽나라들에서 비밀리에 플루토니움을 계속 실어오고있으며 이미 히로시마형핵폭탄을 수천개나 만들수 있는 량을 저축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수년사이에 미국, 로씨야것을 합친것보다 더많은 량을 저축할것을 계획하고있다는것이다. 사실상 지금 일본은 수백수천개의 핵탄을 단숨에만들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놓고있다고 볼수 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단순히 야망에만 사로잡혀있는것이 아니라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고 그들의 해외침략은 실천에 옮겨지고있다.

일본은 지금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밑에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있으며 조선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비롯하여 주변나라들의 령토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일본은 오늘 세계 제2위의 군비를 탕진하면서 ≪자위대≫무력을 현대화하였고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구실밑에 교전권과 작전권을 합법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을뿐아니라 현행 ≪평화헌법≫까지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 모든 군국주의적책동이 랭전후 최근년간 ≪북조선위협≫이라는 구실밑에 감행되여왔으며 특히 지난 한해동안은 우리의 인공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외곡하는 강도적론리밑에 급속히 추진되였다.

결론은 명백하다.

≪미싸일발사≫, ≪미싸일재발사≫, ≪일본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같은 궤변적론리에 기초한 광기는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말살하고 아시아대륙에 대한 재침의 교두보로 장악한 다음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범죄적욕망의 필연적산물이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광기가 절정에 이를수록 자기의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더욱 확고히 행사할것이며 그들이 서뿔리 도발의 불을 지른다면 그것을 백년숙적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의 기회로 삼을것이다. 그때에는 죄많은 일본반동들에게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닥쳐왔다는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게 될것이다.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11호)

오늘 8월 31일은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발사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며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승승장구하는 강성대국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20세기 초엽 일제치하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지금은 인공위성을 꽝꽝 쏘아올리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연쇄도산과 제국주의연합의 포위망이라는 악조건에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당한 주체조선이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초강대국들만이 소유한다는 인공위성, 첨단과학의 정화인 인공위성을 만들어 그것도 단번에 발사성공하는 조선의 경이적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체조선의 위대성이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며 조선을 자주자립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계승하시고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돌파하시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의 강성대국은 바로 정치사상과 자위국방의 강국, 자립경제와 과학문화의 강국이다.

인공위성발사가 더더욱 인류를 경탄시키며 세계사적인 일대사변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오직 자신의 힘과 기술로만 제작된 인공위성은 그 자체로 인류가 도달한 혁명정신의 절정이며 자력갱생의 신화로 된다. 조선은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일 뿐 아니라 최고 수준에 도달한 주체의 강성대국임을 전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다단계로케트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소유는 동의어나 다름없기에 조선은 과학의 강국일 뿐 아니라 군사의 강국으로 세계에 명성 떨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90년대 내내 대북압살책동에 광분하던 미제국주의는 결정적인 정치군사적 타격을 받으며 대조선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할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며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나 유고와는 달리 ≪5027작전계획≫을 수립하고도 대조선전쟁도발을 감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의 군사력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는 90년대 내내 전쟁접경까지 치달으며 전개되었던 조미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장쾌한 축포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선군혁명사상의 요체이다. 조선의 군대는 수령결사옹위사상과 총폭탄, 자폭정신으로 단결한 정치사상의 강군일 뿐 아니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과학기술의 강군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계 최강의 혁명군대로 육성된 조선인민군은 오늘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국방건설도 경제건설도 다 맡아나서는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이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잠재된 무궁무진한 위력을 전세계에 단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며 허둥대던 모습은 한편의 정치만화였다. 미국과 일본이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지껄이며 황당한 궤변으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세계가 다 인정하고 눈으로도 확인된 인공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우겨댈수록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뿐이다. 지금 미 부시정부는 산군복합체의 조종하에 ≪미사일≫방어체계구축으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지배주의적 야심을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부시정부는 내외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며 갈수록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탁월한 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공식방문과 역사적인 모스크바선언으로 부시정권은 더더욱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반미통일전선은 비약적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가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이라면 6.15공동선언은 통일강성대국을 밝히는 21세기 통일이정표,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자주화를 알리는 21세기 자주대강이다. 조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덕없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영도아래 주체의 통일강성대국, 세계자주화의 길로 나아간다. 21세기의 조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대업을 이룩하고 우리 식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주체의 통일강성대국으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21세기는 ≪광명성≫이 송신하였던 **김일성**장군,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이 전 지구를 덮고 온 우주에 차넘치는 주체의 연대기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31일
서울